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가을

2009년 25호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ontents

2009년 제25호 가을

시 론

3. 화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윤대봉(14회)| 동문회장

동문소식

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행사경과
6. 2009년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
8.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전지초도이사회
10. 동문제약회사 CEO방문 / 회장단특별회비
11. 대약·시도지부선거 동문후보자 정책&프로필
18. 제17대 회장단 프로필
21. 제17대 이사 명단
23. 제39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홈커밍데이를 마치고....

지부별 소식

26. 부천지부
|김보원(34회)| 지부장

동기회 소식

28. 3회 졸업 50주년 기념 임승문(3회) 동문
29. 13회 졸업 40주년 기념 이충식(13회) 총무
31. 23회 졸업 30주년 기념 임준석(23회) 회장
33. 만평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34. 중영시선
|허인회(4회) 명예교수|
35. 약국도움이야기
|박희용(23회)| 편집위원

문학산책

37. 섬
|김종기(18회) 동문|
38. 낙엽
|조현인(8회) 동문|
39. 회원동정
41. 발전기금 조성내역
45. 회원경조소식
46. 2009년 2학기 장학금수여식
46. 편집후기

중앙약대 동문회보 인쇄 : 2009년 11월 20일 / 발행 : 2009년 11월 25일 / 발행인 : 윤대봉 / 편집인 : 김기명 /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테헤란오피스 빌딩 1309호) / 전화 : 565-1700 / 팩스 : 564-1701 / http://www.caupharm.or.kr
E-mail:capa21@hananet.net / 기획 · 인쇄 : (주)YSP / 전화 : (031)955-0150(대) / 팩스 : (031)955-0159

和合과 相生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윤대봉(14회) 동문회장

오고가는 사람끼리 잠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한다는데 이렇게 약사라는 소중한 직분은 물론 그 중에서도 중앙대 약대 동문이라는 좋은 만남도 億劫의 큰 인연이지요.

큰 집채만 한 바윗돌을 물방울이 뚫는데 걸리는 시간을 劫이라 하지요?

하늘과 땅이 뒤집혀 세상이 生하고 소멸할 때도 劫이라 하니, 그것이 또 億을 이룸에 무량시간으로 한번 맺은 인연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큰 가르침이겠지요.

한줌의 모래도 셀 수 없거늘 어느 성인께서 恒河沙의 모래에 인연을 비유하시니 그 인연을 귀히 여기시라 말씀하십니다.

동문 선후배 여러분,

도서관의 시계탑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고 청룡연못가의 고인 물처럼 必然으로 우리는 만났지요?

파이퍼홀의 明晳한 동지들이 전국에서 우뚝 솟은 산으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늘 중앙대 약대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불철주야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 인정을 받아왔지요.

의에 죽고 참에 살라는 모교의 정신이 모두의 가슴에 名牌로 깊이 새겨져 약업전선에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늘 솔선하여 봉사의 정신으로 약업계를 이끌어 왔다고 감히 自負합니다.

작금의 의약선진화 방안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詭辯의 논리로 대 자본주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약계의 검은 그림자를 보고 憤慨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마당에 敵前分裂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문회에 남겨진 큰 숙제를 보며 삼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동문 선후배 여러분!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유화가스를 마시며 동고동락하며 어떻게 만나서 만든 因緣들입니까?

서로를 보듬으며 음양오행의 순환 고리로 서로 相生의 길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서로가 다름을 과감히 인정하며 相生의 정신을 이어갑시다.

마음을 열어 조금씩 양보하며 和合의 큰 장을 마련합시다.

대 중앙대 약대 동문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합니다.

고문단회의

■일 시 : 7월 1일 오후 7시
■장 소 : 식도원
■참석자 : 윤대봉 회장, 김기홍, 오세형, 최종묵, 김채윤, 임완호, 권혁구, 유정사 고문, 유대식 사무총장

제1차 회장단회의

■일 시 : 7월 3일 오후 7시
■장 소 : 동문회관
■안 건 : **보고사항**
- 임원명단
- 동문회 연중행사 보고
- 편집위원회 구성

안건심의
- 초도이사회 준비
- (가)중대약대동문회칙개정위원회 구성
- 홈페이지 개편

■참석자 : 윤대봉 회장, 김명웅, 김종렬, 조길도, 정진모, 임영식, 김광식, 유기욱, 장재인, 강응모, 이경옥, 이호선, 최석중, 강희윤, 박상용, 최광훈, 임준석, 정덕기, 이규삼, 최두주, 김정수, 박영달, 이병천, 양덕숙, 김영희, 고석일, 김경자, 백영주, 이경우, 조양연 부회장, 유대식, 한갑현, 김정호, 김홍진, 이광섭, 이 준, 한만영, 최민규, 김기명, 김승업, 박영근 상임위원

회칙개정위원회의

■일 시 : 7월 22일 오후 7시
■장 소 : 동문회관
■안 건 :
- 회칙개정 대상 – 회칙 및 각 위원회 규정
- 회칙개정에 포함할 사항
- 회칙개정 신설조항에 포함할 사항
- 회칙개정 삭제에 포함할 사항
- 회칙개정 절차
  1) 1차 시안을 만들어 회장단회의 심의 의결
  2)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
  3) 정기총회에서 의결 확정함

■참석자 : 윤대봉 회장, 김종렬 위원장, 임영식, 양덕숙 위원, 유대식 사무총장

제2차 회장단회의

■일 시 : 8월 20일 오후 7시
■장 소 : 동문회관
■안 건 : **안건심의**
- 전지초도이사회 준비
- 모교의 날 체육대회 준비
- 동문회 추천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결정논의

■참석자 : 윤대봉 회장, 임영식, 장재인, 정명진, 김경오, 이경옥, 이호선, 강희윤, 최광훈, 정덕기, 최두주, 곽순자, 김영희, 김경자, 백영주, 조양연 부회장, 전광우, 김홍진, 박영근, 한만영, 최민규, 이 준 상임위원, 유대식 사무총장, 한갑현, 김정호 사무부총장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일 시 : 9월 1일 오후 5시
■장 소 : 모교 교수세미나실
■참석자 : 윤대봉 회장, 김대경 학장, 유영후, 유정사 고문, 유대식 사무총장, 이민원, 황완균, 김하형 교수

여동문회 월례회 및 임원 상견례

■일 시 : 9월 2일
■장 소 : 동문회관
■안 건 : 보고사항
- 임원상견례
- 여동문회 발전방향 모색
  1)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여동문회 날(가칭)
  – 심포지엄 or 세미나 개최(11월 초 예정)
  2) 여동문 찾기운동
  3) 재도약 추진위원회(가칭) – 후원회 결성
  4) 이사장, 총장, 학장, 약대 여학생과의 만남 추진
- 약사회 선거와 우리의 자세
- 하반기 동문회 행사일정 공지안내

■참석자 : 강희윤 회장, 김석자, 이경옥 고문, 정덕화 자문위원, 이영희, 류화송 상임위원, 강명희, 이명옥, 공명숙, 곽순자, 김영희, 양덕숙, 김희식 부회장, 김경자 총무이사, 백영주 국제이사, 도민숙 약국이사, 김상의 연수교육이사

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일 시 : 9월 11일
■장 소 : 반포 미야끼
■안 건 : 안건심의
- 2009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 동문회 행사 보고
- 약사회 현안 보고

기타토의 사항

■참석자 : 윤대봉 회장, 김대경 학장, 김기홍, 오세형, 최종묵, 유영후, 권혁구 고문, 김하형 교수, 유대식 사무총장

제3차 회장단회의

■일 시 : 10월 9일 오후 7시
■장 소 : 동문회관
■안 건 :
- 동문회추천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 결정 논의
- 정명진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 선거대책 지원 논의
-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홈커밍데이 준비

■참석자 : 윤대봉 회장, 김명웅, 김종렬, 조길도, 정진모, 임영식, 유기욱, 장재인, 강응모, 정명진, 이경옥, 이호선, 김수배, 박상용, 정덕기, 최두주, 김정수, 박영달, 곽순자, 김영희, 백영주 부회장, 전광우, 김홍진, 이 준, 한만영, 최민규, 김기명, 박영근 상임위원, 유대식, 한갑현, 김정호 사무총장단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신임회장에 윤대봉(14회)동문 선출

지난 6월 5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유정사 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 관계자 및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 조찬휘 서울지부장, 박기배 경기지부장 및 각 약학대학 동문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정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랜 숙원인 약학관 신축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설명하고 "캠퍼스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4명의 교수가 새로 충원되는 등 약학대학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정사 회장은 "중앙대병원 약국장을 본교 출신으로 임명하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지난 2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선·후배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대경 약학대학 학장은 격려사에서 "약학대학이 인기가 있는 것은 국가가 제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약학대학 정원을 40명 증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부 순서로 임원선출에서 윤대봉(14회) 동문이 제17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윤대봉 신임 동문회장은 "중앙대 약대 동문회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다"며 당선소감을 전했다.

동문회장 선출에 이어 진행된 임원 선출에서는 이호섭(12회), 서국진(13회), 홍성철(14회) 동문이 감사로 선출됐으며, 강희윤(22회) 동문이 여약사동문회장으로 임명됐다.

박호일(10회)

박찬희(11회)

엄태항(14회)

최민규(26회)

동문회장 공로패

수상자

총장 공로패

박호일(10회), 황공용(11회), 박찬희(11회)

총동창회장 공로패

한만우(3회), 엄태항(14회)

학장 공로패

박종화(23회), 최민규(26회)

동문회장 공로패

김애경(18회), 이신규(20회), 박영근(20회), 정덕기(23회), 한갑현(26회), 김희식(28회), 허웅재(30회), 전형수(34회), 고성호(37회), 정평규(37회), 권청진(38회)

전지이사회를 다녀와서

조 양 연 (32회)

청명한 하늘과 산들산들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진 9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대한약사회관 앞은 양평 VIP 종합레져타운에서 열리는 전지이사회에 참석 하려는 동문들로 북적거렸다.

이번 전지이사회는 윤대봉 동문회장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되는 야외 행사다.

원로 선배부터 32기 후배까지 선후배 동문들이 동문회의 발전방안과 올해 사업계획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동문간 상호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행사로 계획된 것이다.

100여명의 동문들은 2대의 전세버스에 나눠 타고 전지이사회가 개최되는 양평 VIP 종합레져타운으로 향했다. 차창너머로 펼쳐지는 가을산야는 너무도 곱고 멋이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들판, 연분홍 단풍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산자락, 길가에 핀 코스모스며 이름 모를 가을꽃들을 바라보며 익어가기 시작한 가을정취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이 우리들은 자기소개와 그간의 안부를 묻고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어스름한 저녁빛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도착한 양평 VIP리조트 앞마당은 개별 출발하여 도착한 동문들과 전세버스에서 물밀듯이 쏟아져 내리는 동문들간 한바탕 어우러짐으로 시끌벅쩍 하였다.

잠시 후 2층 세미나 룸에서 진행된 초도이사회는 윤대봉 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회 고문과 자문위원, 모교 교수님, 각 기수별 회장단, 이사 등 12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의 발전과 동문의 단합을 다짐하는 열기와 결의로 가득 찼다.

윤대봉 회장은 인사말에서 모교와 동문회 발전, 약사회에서의 모교 동문회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2년간의 임기동안 동문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경 모교 학장은 "국내 최대 규모 약학대학이라는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1억 4,660만원의 2009년도 예산안과 모교 체육대회 개최건 등 2009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기타 안건토의에서 원로선배 예우차원에서 50주년부터 동문회 회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초도이사회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연말에 진행될 약사회 선거에 출마할 동문후보 추대식이었다.

출마예정 동문 선후배간 상호 토의와 협의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성취해낸 서울지부의 정명진 후보, 경기도지부의 김현태 후보, 인천지부의 고석일 후보 등 3인에 대한 동문후보 추대와 필승을 기원하는 출정식, 그리고 필승으로 동문회 지원에 보답하겠다는 후보의 각오가 초도이사회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초도이사회장의 열기는 통나무 숯불 바비큐와 소주잔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저녁 만찬장으로 이어졌다.

전광우 선배의 사회로 진행된 동문 화합의 시간과 캠프화이어는 가슴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내는 축제의 장이자 선후배, 교수님 등 동문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하나되는 화합의 자리였다.

벌레를 쫓기위해 피워놓은 쑥 연기가 옛 고향 향취를 자극하는 가운데 가을밤 아래 펼쳐진 시대와 세월을 넘나드는 선후배들간의 진솔한 대화, 학창시절 동문 교수님들의 근엄함마저 사라져 버린 격의 없는 어울림, 동문 단합과 모교발전에 대한 격정의 토로는 그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새벽이슬 머금은 양평의 아침은 살포시 드리워진 아침안개와 참 잘 어울렸다.

밤새 이어진 저녁 만찬의 피로감도 벌써 떨쳐버린듯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 산책코스를 한 바퀴 돌고 나오시는 동문 선배님들이 여러분 보인다. 참 체력도 좋으시지....

간단히 조반을 마친 우리들은 가을이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치악산을 향했다.

아직은 한 여름의 녹음이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알록달록 가을 단풍옷으로 갈아입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치악산 산속으로 자연이 선사해 주는 신선한 공기를 맘껏 호흡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는다. 세속의 번잡함을 훌훌 떨어내면서 ...

상원사 동종에 서려있는 은혜 갚은 꿩의 전설에서 유래되었다는 치악산(치악산의 '치' 자는 꿩에서 유래되었다 함)에 대한 권혁구 전임 동문회장님의 치악산 문화유적 답사 설명이 귓가에 맴돈다.

치악산 등반을 마치고 간단한 기념사진을 찍고 난 후 가족과 생업터전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내달린다. 끈끈한 동문 선후배간 우정과 전지이사회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동문 제약회사 CEO방문

7월 28일 건일제약 김용옥(3회) 회장 오전 11시

7월 28일 일동제약 윤원영(5회) 회장 오후 2시

7월 28일 일양약품 정도언(14회) 회장 오후 3시

7월 30일 한불제약 정승환 회장 오후 2시

7월 30일 한미약품 임성기96회)회장 오후 3시

회장단 특별회비

▲ 1차 회장단회비(각 500,000원)
김기명(18회), 정덕기(23회), 최두주(25회),
최민규(26회), 박영달(2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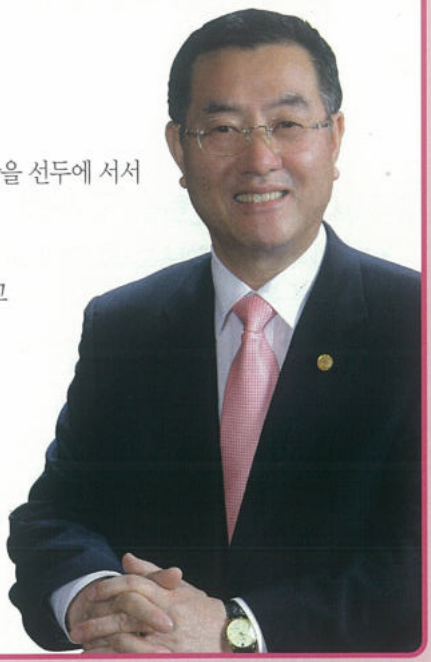
▲ 2차 회장단회비(각 500,000원)
김명웅(14회), 임영식(15회), 김수배(21회),
김정수(26회), 이준(29회)

◀ 3차 회장단회비(각 500,000원)
김종렬(14회), 조길도(14회), 정명진(18회),
김홍진(20회), 백영주(30회)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호 2 김 구

출마의 변



지난 보궐 선거 때 보내주신 동문 선후배님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잔여 임기 1년 3개월 동안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불허, 신종 인플루엔자 조제 투약 전체약국확대,
약화사고 보험 전체약국 무료가입 실시로 약사 직무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약사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약국 부분 전문자격사 시장선진화 방안을 선두에 서서 막아낸 회원들은 다름 아닌 우리 동문들 이었습니다.
약사회에서 우리 동문들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어떠한지 절실히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보여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저지 의지와 행동이 바탕이 되고 힘이 되어 일반인 약국개설 공청회를 무기 연기시켰고 정부 핵심인사로부터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동문이 하나로 뭉치고 약사회 중심에 선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이겨 나 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약권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1년 3개월간의 잔여임기동안 약사회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3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약권을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동문회의 명예와 위상제고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요 공약

회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약업의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약사들의 권리와 자존심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약국경영을 신명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직능을 확대하고 미래를 향한 재도약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병원약사, 제약유통약사, 공직약사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하나 되는 약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원을 한 가족처럼 생각하는 약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구체화 된 공약

1. 약국 경영 활성화 – 신 성장동력 개발 및 보급
2. 약국 경영합리화 추진
①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전용메일 제작 · 보급
3.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②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와 복합제 대체기준 도입
③ 불합리한 규제 및 과중처벌 조항개선
–양벌 규정 폐지
–과태료 부과기준 재조정
–의약품 가격 미표시시 처분완화
4. 회원 고충처리와 복지향상을 위한 민생회무 강화
① 회원 고충처리
–3년주기의 재고약 반품사업 정례 실시
–약사감시 일원화 및 약사 자율지도권 부활을 위한 법령개선
② 회원 복지
–약사 전용 직거래장터 개설
–약사자녀 대상 교육 캠프운영
5. 약권 수호 및 대국민 약사직능 홍보활동 강화
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 전략수립 시행
②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저지 전략수립 시행
6. 공정하고 정의로운 약업 질서 구축과 의약품 유통합리화
① 자율정화 활동 강화
–면대.담합 약국,카운터 척결
–본인 부담금 할인행위 척결
② 의약품 유통 합리화 및 선진화
–의약품 유통비용(금융비용)의 합리적 대안모색
7. 성공적인 약대 6년제 시행과 약사 학술 기반강화
① 약사연수법인 설립
② 전국약사학술대회 개최
③ 대한약사회지 발행
8. 약사직능의 확대와 직능 간 균형발전
① 약사중심의 DUR 전국 확대 추진
②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추진
③ 병원약사 관련 제도개선
– 병원약사의 대의원 배정기준 개선
– 병원약사인력 기준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추진
9. 사회참여 강화로 약사직능의 공공성 확대
① 약사직능의 지방자치 및 중앙정치 참여 지원
10. 약사회 조직개선 및 부속(출자)기관 기능강화
① 여약사 및 신진약사 회무참여 기회확대
② 대의원 제도 개선으로 회원의 회무참여 확대
③ 약사권익보호 위원회 신설로 회원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지원 회무강화

김구 경력

- 서울용산구약사회 약국위원장
- 삼화약품 상무이사
- 경기도 성남시약사회 부회장
- 경기도약사회 홍보위원장
-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 경기도약사회장
-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약사회 부회장
- 제1회 약업박람회 조직위원장
- 베스트파머시랠리2000 실행위원장
- 2002 서울FAFA 총회 조직위원장 부위원장
- 약사공론 주간
- 제17회, 21회 약의 날 준비위원장
- 제4차 전국약사대회 준비위원장
- 경기도약사회 총회의장
- 대한약사회 부회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김구약국 운영
- 현 대한약사회 회장

■ 선거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316-31 엠쉐르빌 1004호 Tel : 592 3902/3 Fax : 592 3904 Homepage : victorykim9.or.kr

이 유인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홍보물입니다.

변화와 도전으로 약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일반인 약국개설 · 의약품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1. 약사권리 수호회장 조찬휘
- 전문자격사제도 개악음모 국회 입법 원천 봉쇄
- 신종플루 복지부 고시 개선 등 5개 공약

2. 레벨업 의약분업 발전회장 조찬휘
- 영세약국 가중치 차등수가제 개선 등 8개 공약

3. 경제회장 조찬휘
- 의약계 공조 웰빙건강상품권 추진으로 약국시장 확대
- 거래처 횡포영업 퇴치전담기구 설치 등 6개 공약

4. 약사복지 · 문화회장 조찬휘
- 대한약사복지회 설치, 비용효과적 보험상품 개발 등 4개 공약

5. 의약품안전운동 회장 조찬휘
- 소비자 상담용 '의약품정보상담센터' 운영
- '의약품안전운동본부' 설치 등 3개 공약

6. 21세기 약사회회장 조찬휘
- 차기선거 선거공영제 실시, 임원양성사관학교 설립
- 대한약사회관 신축 등 9개 공약

7. 병원 약사와 함께하는 회장 조찬휘
- 병원 약사 인력 기준개선 및 차등수가제 도입
- 병원약사 당연직 부회장 등 4개 공약

- 現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32대)
- 現 대한약사회 부회장
- 現 의약품정책연구소 이사
- 現 서울특별시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 서울특별시약사회분회장 협의회회장
- 성북구약사회 회장 (2회연임)
- 한독약품 성북구 영업소 소장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기호 **1**

대한약사회장 후보

조찬휘

기호

2

위풍당당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정품 명품 진품

25년이 넘는 회무 경력
4번의 서대문구 약사회장,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 총무이사, 부회장을 거친

준비된 후보 '정명진'

약사직능을 바로 세우고,
약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사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후보

기호 2번 '정명진' 입니다.

"약권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과도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 올바른 정책 수립으로 약사회 방향성 제시

1. 일반인 약국개설 불가, 반드시 관철
2.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
3. 과도한 약사법 벌칙조항 완화, 쌍벌제 폐지
4. 성분명 처방 단계적 실시,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 삭제

●●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약국경영

1. 재고약 반품시스템 구축
2. 약사 감시체제 일원화, 자율감시권 확보
3.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4. 향정약 전문의약품 수준으로 관리

●● 실현 가능한 아이템으로 약국경영 활성화

1. 약국환경 개선위한 경영 컨설팅 무료 실시
2. 일반의약품 활성화 위한 협의체 구성
3. 단골약국 개념 도입으로 동네약국 활성화

●● 모든 약사가 하나되는 화합의 약사회

1. 병원약사 당연직 부회장제 도입, 대의원 선임
2. 제약 · 유통 협의체 구성, 재고문제 해결
3. 병원약사, 공직약사 처우개선
4. 병원 인력수급 문제, 조제수가 인상 위해 최선

●● 행복한 약사회를 위한 회원 복지

1. 종합병원 계약 통해 회원 가족 건강검진 실시
2. 단체 계약 통해 약사연금, 화재보험 가입
3. 여가선용 위한 체육활동 지원

●● 약사 윤리 확립

1.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근절
2. 병의원-약국 담합 방지 대책 마련
3. 민원 해결 위한 회원고충처리센터 운영

■ 선거사무소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29-81호 르미에르 5차 401호 새명지약국 Tel : 6375-2800~1 Fax : 6375-2800~1 Homepage : happypharm.or.kr

이 선거광고는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홍보물입니다

경기도약사회장 후보

5천 경기약사의 품격한 일꾼

1 김현태

"약권사수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중앙의 명예를 드높이겠습니다."

경기도약사회 제26대 회장선거에 중앙대 단일후보로 출마한 김 현태 동문의 출마일성은 "약권사수"와 "동문의 명예와 위상 제고"였다.
"정부가 약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약국 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공청회를 경기도약사회 동문회원들이 선두에 서서 무기 연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동문으로서 자부심과 든든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대후보가 특정대학 독식문제를 거론하며 약사회에서 우리 동문 선후배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폄하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 동문 출신 임원들이 약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부분과 약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그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비난하는 것은 책임 있는 후보가 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현재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는 성남시약사회장 출신인 김 순례 후보와 김 현태 동무간의 양자 성대결로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어

경기지역 동문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현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1310 해피팜 프로젝트를 기치로 6천 경기약사가 모두 행복한 1등 경기도약사회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으며, 행복한 약사, 잘사는 약국, 화합하는 약사회를 지향하는 실천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김 현태 후보의 **1310** 해피팜 프로젝트
1은 경기도약사회 사상 첫 상근회장을 상징하며,
3은 3가지 약사회 변화를 의미하는데 민생회무로의 회무중심축 변화,
풍요로운 약국경영으로의 변화, 약사직능의 미래를 대비하는 회무자세의 변화를 말하며
10은 해피팜 프로젝트 세부실천 공약으로

김현태(金賢泰) 약력

1954년	수원출생
1972년	수원고등학교졸업
1976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1979년	대영약국 개업
2001년	수원시약사회 회장
2004년	사회발전협의회 의장
2006년	경기도 녹색환경연합회 이사
2006년	수원시경제실천연합 자문위원
2007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2007년~	수원시약사회 총회의장
2007년~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2007년~	경기도녹색환경연합회 수석부회장
2008년~	북수원로타리 회장
2008년~	경기도약사회 면허대여정화추진TF팀장

해피팜 프로젝트 세부실천 공약

1. **상근회장 복무**
2.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저지
3. 회원고충처리와 복지향상을 위한 민생회무 강화
4. 약국 경영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추진
5. 카드수수료 인하 선도
6. 대약의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개선, 처방전 리필제, 일반의약품 확대 등 의약분업 제도개선 지원
7. 약대 6년제에 대비한 2+ 플러스 레벨업 프로젝트
8. 제2지부 및 소수분회 행정지원을 강화
9. 참여제안제도 및 클린 임원제도 도입
10. 약사회 조직개혁과 사회참여 강화

■ 선거사무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4-4 전화번호 : 031-235-5701 이메일 : hytakim@hanmail.net

대전시 약사회장 후보

1 홍종오

경 력

(주)종근당 근무
대전 동구 삼성동소재 삼성약국 경영
대전 중구 대흥동소재 종오당약국 경영
대전광역시 동구약사회 회장
대전광역시약사회 총무위원장
대전광역시약사회장
법무부 대전서구 갱생보호위원 역임
대전 · 충남 적십자 자문위원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 위원
(사)대전언론문화연구원 이사
(사)대전언론문화연구원장 (디트뉴스24 운영)
한국스카우트연맹 대전 · 충남 부연맹장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장(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장)

공 약

-편안한 약국경영환경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사회
-약대 6년제 대비 학술강좌 활성화
-인재를 키우는 약사회무
-근무약사 인력풀제 운영
-성분명 처방 추진
-동일성분 조제 개선
-회원의 약사회관 효율적 이용추진

충청남도 약사회장 후보

1 전일수

경 력

시몬약국 개설
대광약국 개설(현재)
아산시분회 한약위원장
아산시분회 총무위원장
충남약사회 한약위원장
충남약사회 총무위원장
대한약사회 정책단 위원 및 이사
충남약사회 정책단장
現 충남약사회 부회장
現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現 대한약사회 대의원
現 아산시분회 감사
現 약사공론 운영위원
現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명예지도위원 및 KGSP명예지도원

공 약

충남약사회 발전을 위한 "비젼2010 프로젝트"

1.비젼2010 슬로건

새로운 변화 (Innovation)
새로운 미래 (Ambition)
도약하는 충남약사회 (Development)

2.비젼2010 추진목표

1) 회원에 의한 힘있는 약사회(power)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 약사 정체성 확립과 직능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나) 회원 1000명시대에 걸맞도록 회무시스템 및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 새로운 인재 발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2) 회원을 위한 열린 약사회(open)가 되겠습니다
가) 약국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나)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 약대6년제를 대비한 약사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 회원이 함께하는봉사하는 약사회(service)로 거듭나겠습니다
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 회원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 약사직능을 통한 대국민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TF)를 설치하겠습니다

가) 정책 TF팀 설치
나) 약국경영활성화TF팀 설치
다) 약사고충처리TF팀 설치

경상남도 약사회장 후보

2 이원일

경 력

마산시약사회 보건위원장
현) 마산YMCA 이사(현)
마산시약사회 약국위원장
경남도약사회 총무위원장
진주, 마산, 창원지역에서 무료한방강의(매년)
제주 국제 아이언맨대회 완주(16시간 28분)
(SWIM 3.8km, BIKE 180.2km, RUN 42.195km)
마산철인클럽 회장
현) 마산시약사회장
현) 한국약사고방연구회 부회장
현) 장수당약국 대표약사
전국무료한방강좌(대한약사회)강사
현) 부산지방식약청 마약류 명예지도원
현) 마산시 마약류 명예지도원
현) 부산지방식약청 의약품 명예지도원
현)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현)
2009 제주 국제 철인 3종대회 완주(14시간 59분)
현) 대한약사회 대의원(현)
현) (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 이사(현)

공 약

행복한 만남!
SMART PHARMACY!!
건강한 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약사면허 말살시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당당하게 막아내겠습니다

1. 약국의 경영지원과 회원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회

- 중복되고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약사감시를 줄이겠습니다. 약국의 자율점검제, 약사회의 자율지도권을 확보하여 회원 여러분은 약국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경남도내 행정기관별 · 행정구역별로 들쭉날쭉한 약국관리 지침을 통일하여 약국의 개업에서 관리 그리고 폐업까지를 망라한 통일된 "약국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상호간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가 시작되면 경남 전체 회원약국에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기술적으로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약국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와, 일반의약품 활성화의 아주 간단한 해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약국관리프로그램에는 POS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코드 입력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회에서 책임지고 쉽고 편하게 바로 약국에 도입 가능하도록 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 면허대여약국, 전문카운터는 대한약사회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과감히 척결하겠습니다.
- 약국내 불용재고약의 처리와 소포장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회무의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성분명처방이 지금이라도 강제화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 가능한 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약국의 외관개선사업(간판청소, 조명, 선팅 등)을 지부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외부인의 약국에 대한 첫 느낌이 위생과 청결이어야 합니다. 작지만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 약국내 조제데이타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약학정보원과 협조하여 현재 USB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있는 약국 데이터파일을 암호화하고 분실의 위험이 없고 안전한 웹스토리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실력있는 약사! 존경받는 약사! 성공하는 약국!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회!

- 온라인, 오프라인 강좌를 상설화하겠습니다. 임상약학, 건강기능식품, 한약, 약국경영, 약국화장품, 약국세무, 건강보험청구, 약국행정등 다양한 분야에 외부 전문가와 교수진을 초빙하여 학습하고 약대 6년제 후 전문약사제의 도입에도 준비하겠습니다.
- 분회의 학술강좌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약사회원님들의 건강과 약사회의 단합을 위하여 동호회(스포츠, 취미 등)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근무약사님과 새내기 약사님들의 약국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겠습니다.
- 병원약사님들의 처우개선과 병원약국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웃에 봉사하는 약사회,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약사회로 거듭나 경남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약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 투명한 회무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고품격 약사회

- 회비사용 내역을 회원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분기별로 약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상임위원장에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예산과 사업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전권을 맡기겠습니다. 지부장 홀로 모든 회무를 다 처리하는 약사회는 이제 더 이상 임원과 회원의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 상임이사회는 주1회 이상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3회 개최되는 상임이사회는 일하는 약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제 고치겠습니다.
- 상근약사제와 약사인력풀제도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모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부장의 판공비를 전액 본 사업에 재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지부정책포럼을 임기 시작후 바로 창립하겠습니다. 약사회무에 관심있는 회원님들과 경륜있는 회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약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씽크탱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지부에서 실시하는 대회원사업이나 대국민사업들을 벌려만 놓고 사진 몇 장 찍고마는 겉치레식 행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의 개시전에 스토리보드를 먼저 계획하고 항상 진행상황과 사후관리를 확실히 하여 실속있는 회무가 되도록하겠습니다.
- 연수교육의 내실화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폰서를 위해 장사꾼들에게 천금같은 시간을 내어주는 연수교육 그리고 시간땜질식의 연수교육은 지양하고 앞으로는 1500명 곱하기 8시간의 효과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연수교육의 지역별 순환개최도 도입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순환개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멀리서 단체로 버스로 교육에 참가하는 분회에는 교통비 · 식대를 지급하겠습니다.
- 홍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안발생시 관계기관, 지역언론사 등에 즉각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또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약사회장 후보

1 고석일

경 력

현 부평구 약사회 감사
현 대한약사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현 대한에이즈 예방 협회 운영위원
현 인천시약사회 축구단 단장
전 인천광역시 약사회 총무위원장
전 부평구 약사회 총무위원장(3회연임)
전 부평구약사회 자율지도 위원장
전 남구약사회 자율지도 위원
전 인천광역시약사회 교품몰 운영위원장
전 인천광역시약사회 팜코카드 운영위원장
재인천 약학대학생 총연합회 회장

공 약

Ⅰ. 3가지 현안 문제 해결

1)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저지
2)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저지
3) 재고약 해결
 *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 면허에 대한 도전은 용납할 수 없다.
 * 약사의 존립근거를 해치는 일체 행위를 차단한다.
 * 약국 경영 개선과 동네약국의 어려움을 우선 해소
 * 개봉 재고약 최소화 하는 시스템 구축 및 원활한 반품
 * 교품몰 확대 개편

Ⅱ. 3가지 활력 이벤트

1) 인천 약사 하나되는 화합의 날
2) 인천시약사회 학술대회
3) 전국여약사대회 유치
 *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 약대 6년제를 대비한 임상약학 교육 상설화
 * 여약사의 회무 참여 고취 및 인천약사회 발전 방안 모색

약사가 약사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1. 약의 주체로서 조제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한다.
2. 일반의약품의 가격경쟁으로부터 해방되고 소비자로부터 약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3. 약국 간에 경쟁은 하되 약사윤리는 준수되어야 한다.

Ⅲ. 7가지 약국 경영 지원

1) 동네약국 살리기
 * 일반의약품 "가격 경쟁력 열세" 극복 – 100대 일반의약품 가격 "정찰제" 도입
 * "의약품 비축센터" 설립 – 동네약국에서 단골손님의 처방전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2) 약국 소모품, 장비 공동 구입
 * 사무국에 "공동 구매 센터" 설치
 경쟁입찰을 통해 저비용으로 양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약사회비 환급 효과"– 회원에게 이익을 돌려 드립니다.
3) 약국 근무자 관리 지원 (구인/고용 안정)
 * 근무자 "근무평점제" 도입
 약사회에서 약국직원 채용 기준 제안, 교육 실시
 잦은 이직 등 부적격자 취업 제한 및 퇴출

4) 내실 있는 연수교육 실시
 * "약사 아카데미" 설치
 ; 다양한 인터넷 강의 (학점 이수제 실시)
 ; 6년제 대비 커리큘럼 개발

5) 선후배 약사 간 결연 추진
 * 60세 이상 약사님과 후배약사의 공동경영 권장
 ; 선배약사는 웰-빙을 추구하고 후배약사는 약국개설

6) 약사직능 비전에 대한 연구 활동
 * 전문위원회 구성
 신규 사업모델 개발, 경영 다각화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발전적 비전 제시

7)약국의 대 국민 신뢰 회복 프로그램 개발
 * 약사와 약국에 대한 이미지-업을 통해 고객에 대한 자신감 함양
 * 고석일 어려운 현안을 해결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인천회원 모두 행복한 약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웰-빙 약사 구현
일하면서 즐기자
즐기면서 휴식하자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 1인 1취미(동호회) 적극 권장**
*** 인천시약사회 전용버스 도입**
약사 개인 및 약사회, 동호회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

제17대 동문회장단 및 상임위원단

제17대 동문회장단

회장(14회) 윤 대 봉

사무총장(22회) 유 대 식

사무부총장(26회) 한 갑 현

사무부총장(27회) 김 정 호

수석부회장(14회) 김 명 웅

부회장(14회) 김 종 렬

부회장(14회) 조 길 도

부회장(14회) 정 진 모

부회장(15회) 임 영 식

부회장(15회) 윤 종 준

부회장(16회) 김 광 식

부회장(16회) 유 기 욱

부회장(17회) 김 인 형

부회장(17회) 장 재 인

부회장(17회) 신 상 직

부회장(18회) 강 응 모

부회장(18회) 정 명 진

부회장(19회) 김 경 오

부회장(19회) 윤 건 섭

제17대 동문회장단 및 상임위원단

제17대 동문회장단

부회장(19회) 이 경 옥

부회장(20회) 이 호 선

부회장(20회) 정 찬 헌

부회장(20회) 최 석 중

부회장(21회) 김 수 배

부회장(21회) 이 상 준

부회장(22회) 강 희 윤

부회장(22회) 박 상 용

부회장(22회) 최 광 훈

부회장(23회) 김 영 식

부회장(23회) 임 준 석

부회장(23회) 정 덕 기

부회장(24회) 김 승 재

부회장(24회) 이 규 삼

부회장(25회) 최 두 주

부회장(26회) 김 정 수

부회장(27회) 박 영 달

부회장(27회) 곽 순 자

부회장(28회) 이 병 천

부회장(28회) 양 덕 숙

제17대 동문회장단 및 상임위원단

제17대 동문회장단

부회장(28회) 김 영 희

부회장(30회) 고 석 일

부회장(30회) 김 경 자

부회장(30회) 백 영 주

부회장(32회) 이 경 우

부회장(32회) 조 양 연

상임위원단

윤리(11회) 김 승 업

편집(18회) 김 기 명

홍보(18회) 전 광 우

섭외(20회) 김 흥 진

ROTC(20회) 박 영 근

제약경영(22회) 한 만 영

병원(24회) 이 광 섭

체육(26회) 최 민 규

학술(27회) 최 면 용

정보통신(29회) 이 준

제17대 이사 명단

기 수	이 름
제 1 회	홍흥만, 김욱동, 김기홍, 김순일, 손동헌, 이광표, 이동화, 장 례, 박학전
제 2 회	이문규, 김종욱, 김홍식, 이택성, 정덕화, 지선훈, 박문호, 최관용, 신양균, 서화택, 한성순, 최영대, 황재수
제 3 회	김용옥, 노인배, 배영식, 김석자, 박종순, 선우연, 안경식, 이기상, 윤영식, 안재민, 이병균, 오세형, 최종묵
제 4 회	천홍기, 구본원, 김기호, 김현용, 김흥수, 문창하, 박노일, 박승배, 정재휜, 안국영, 우정희, 이연수, 이창우, 최영만, 한민희, 허인회
제 5 회	김상오, 김명섭, 김영배, 김채윤, 박명자, 박영규, 신화우, 윤원영, 이명환, 이송학, 정훈교, 임영규, 조동준
제 6 회	임성기, 김경희, 김동열, 신정숙, 유상열, 박정배, 유관열, 전희태, 진교성, 안병한, 안인혁, 임완호, 최길영, 홍병석, 정병종
제 7 회	정재일, 강승안, 권오성, 김영덕, 김정부, 김영일, 박명신, 박상용, 박수배, 박숙자, 박양시, 배동운, 서명규, 신완균, 유영후, 이기안, 이능세, 이양헌, 이용원, 장영수, 정조원, 최춘자, 한철희,
제 8 회	조의환, 임상묵, 김돈기, 김희영, 박도규, 박번일, 유영수, 한석원, 김연희, 김홍자, 문옥자, 허근희, 배영애, 장영자, 김신자
제 9 회	권혁구, 이규진, 김의섭, 강군모, 권태섭, 김정보, 김창용, 상병준, 양무웅, 이근배, 최인자, 황태선, 박성학, 손승언, 김영빈, 김영부, 김 철, 김학원, 윤광노, 박장우, 최영근, 허 룡, 문영동, 김형규, 김홍래, 노신희, 이찬호
제 10 회	김광일, 김영호, 박호일, 방순환, 변도문, 서정목, 유정사, 이대윤, 이양원, 이영민, 이홍수, 정수길, 정영기, 조규동, 주정덕
제 11 회	김승업, 황공용, 정덕호, 황문상, 김미자, 김창종, 박승보, 박상희, 박찬희, 박희경, 김정길, 고승하, 최옥출, 신명승, 이명자
제 12 회	심재웅, 노덕재, 이호섭, 강옥희, 김 구, 남기탁, 노석준, 박영찬, 우준하, 이효훈, 이성우, 조택상, 최병호, 이관하, 이정구
제 13 회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최창엽, 안병식, 김종성, 김병현, 박현숙, 신선철, 이상길, 이종각, 이충식, 오영지, 엄계숙, 임유재, 송옥순, 황근성, 이우식
제 14 회	김명웅, 윤대봉, 김종렬, 조길도, 정진모, 박기진, 신광근, 양인승, 조양연, 지성배, 채성기, 홍성철, 현수홍, 안해봉, 이희영, 유효성, 김인덕
제 15 회	임영식, 윤종준, 강용순, 조찬휘, 김윤빈, 이상용, 고동석, 박원봉, 이영운, 권영선, 오세일, 임순만, 김영만, 원장희, 정해성, 김용의, 위혜주, 최영덕
제 16 회	유기욱, 김광식, 허사길, 조기현, 강명채, 권영복, 송용만, 안태환, 우상규, 이은술, 이은주, 하상권, 최창원, 고숙자, 이범준, 한인희, 김재성, 백승복, 차동일, 최광식,

제17대 이사 명단

기 수	이 름
제 17 회	김인형, 장재인, 양희익, 신상직, 선우영환, 주완표, 김기종, 김대희, 김성지, 김성택, 김인회, 김재천, 김종환, 김태성, 신창억, 유승화, 이동우, 전상훈, 윤수근
제 18 회	강응모, 전광우, 김기명, 정명진, 김상각, 조중형, 최수형, 임종진, 이원영, 김승열, 한창일, 박원래, 김애경, 강성원, 박광숙, 최한규, 박계환
제 19 회	윤건섭, 김경오, 이경옥, 김미담, 김홍옥, 남상구, 박효식, 안형수, 옥태석, 유태일, 차영수, 민상임, 이은영, 신성희, 성귀현, 신성익
제 20 회	최석중, 이호선, 김홍진, 박영근, 구장림, 이신규, 김현태, 박기배, 정찬헌, 유영내, 권오규, 이극선, 오상동, 이영희, 류화송, 송열호, 이상일, 박지순, 황양호
제 21 회	이상준, 김수배, 홍종오, 김두수, 이규섭, 전명선, 김동학, 김중효, 백운경, 박전희, 한성희, 이세진, 권오규, 김동연
제 22 회	유대식, 강희윤, 박상용, 최광훈, 한만영, 강명희, 김홍진, 오황영, 이명옥, 이준상, 손의동, 이현희, 차달성, 정진호, 전철호, 이규흥
제 23 회	임준석, 정덕기, 조병훈, 강한구, 곽창림, 박찬남, 이도익, 김영출, 김영표, 박종화, 박희용, 강호영, 이승하, 최동순, 제갈희, 조근태, 하충렬, 홍순욱, 김영식, 권석형
제 24 회	이규삼, 김승재, 이광섭, 황규진, 박관수, 정종근, 윤규형, 박길태, 김태두, 함삼균, 조중래, 임형균, 양성삼, 갈원일, 오진영, 최영욱
제 25 회	최두주, 이내흥, 고성권, 김광호, 김영식, 김희섭, 이재희, 이민원, 조석현, 전경숙, 김춘규
제 26 회	최민규, 김정수(B), 한갑현, 김정수(A), 진희억, 정태영, 김안식, 선우일원, 박재길, 백낙기, 하재일, 이승헌, 양승훈, 최교석, 노수원, 손영득, 윤광중, 윤용혁, 이영준
제 27 회	김정호, 박영달, 최면용, 곽순자, 오흥설, 이무택, 이원일, 이혜숙, 현기원, 민병희, 김경희, 김창식, 유재수, 서평석, 한봉길, 최충식, 오순용
제 28 회	이병천, 김영희, 양덕숙, 김희식, 고재호, 송준용, 신영무, 안희규, 유희동, 이숙희,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전금용, 조상오, 조형진, 최용철
제 29 회	이 준, 이종민, 하숙량, 서경원, 유승열, 이진자, 손병로, 현상배
제 30 회	고석일, 김경자, 백영주, 김광식, 이장무, 최병원, 홍성광, 김혜수, 정용진, 신일균, 최병태, 이진우, 정의차, 김정일
제 31 회	이성표
제 32 회	이경우, 조양연, 전경숙, 정영복, 김신규, 서용욱
제 34 회	김보원, 한일권

제39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홈커밍데이를 마치고…

09년 10월 18일 드디어 기다리던 〈제39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홈커밍데이〉가 열렸다. 지난 해 개교 90주년을 맞이한 모교는 두산이라는 대형 엔진을 장착하고 세계를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했음을 알리듯 학창시절 거닐던 루이스 가든에는 약학관을 짓기 위한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세련된 외모로 변한 도서관을 지나며 옛 추억을 잠시 회상해 본다. 80년의 봄, 당시 학생회 주관으로 약학대학 체육대회를 준비하던 중, 계엄 포고령에 따른 휴교로 인해 행사를 치루지도 못하고 아쉽게 중도 하차한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최 민 규 (26회) 체육위원장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학교 풍경에 다소 당혹감을 느끼지만 웅비하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함과 동시에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는 모교와 사랑스런 후배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애쓰신 은사님들과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며 개막식이 거행될 대운동장에 들어선다.

이미 확정된 일정을 연기하면서 까지 좀처럼 빌리기 쉽지 않았던 모교의 대운동장에서 행사를 치루게 된 것이 천만 다행이라 느끼며 애쓰신 분들의 수고를 생각해 본다. 연기된 것은 체육대회 일정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중간시험까지도 미루고 선후배가 함께 하는 멋진 시간을 만들기 위해 배려하신 윤대봉 동문회장님과 김대경 약대 학장님의 일치된 한마음의 결과였다.

각계 각층에서 대회 축하 화환과 함께 내외빈들께서 참석하시고 은사님을 비롯한 동문 선후배 및 재학생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개막식의 팡파레와 함께 대회사 및 축사가 이어지고, 김학철 동문(26회)의 축시와 남녀 대표 선수로 뽑힌 김영희 동문(28회)과 박재성 동문(38회)의 선수 선서가 이어진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과 동문회의 새로운 출항을 알리는 힘찬 뱃고동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지난 체육대회와는 달리 테니스대회는 골프대회처럼 별도

의 날짜를 잡아 이미 9월 13일 60여명의 동문이 참여하여 안산 시립코트에서 거행이 되었고, 골프대회는 9월 28일 용인의 88클럽에서 개최가 되었다. 특히 테니스대회는 안산지부(회장 27회 오흥설)의 전폭적인 협조로 성황리에 거행이 되었다.

모교 대운동장에서 거행된 체육대회는 기존의 지역별 동문회는 물론 각 기수별, 실험반, 써클 동아리, 교직원, 학생팀 등으로 팀을 이루어 소규모의 인원일지라도 많은 수의 팀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경기 종목도 다양하게 준비하여 팀 대항 경기(족구, 바둑, 윷놀이, 제기차기, 단체 줄넘기, 배구공 페널티 킥)와 전체 동문을 홀수, 짝수 기수별로 나누는 청백전 경기(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발야구, 축구, 명랑운동회)로 진행을 하였다. 종목이 많아 진행하는데 다소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각 종목별로 행사를 책임지고 점심도 거른 채 도와주신 동문들의 수고로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본부석 좌측 천막 안에는 간이식당을 설치하여 파전과 국밥 등을 준비하고 각 지부회나 동기회 및 실험반, 동아리 등에서 협찬해준 막걸리, 생맥주, 족발, 머릿고기와 각종 과일 등을 차려놓고 오랜만에 만난 동기며 선후배들이 반가움에 술잔을 주고 받으며 회포를 풀면서 한바탕 웃음꽃을 피운다. 전날까지 내린 비로 마음을 졸였지만 청명하고 맑은 날씨로 대회를 치루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이 되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에 가을 하늘이 유난히 푸르게 보인다.

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시상과 함께 행운상 추첨이 시작된다. 1등 상품은 78동기회(26회)에서 기증한 TV 겸용 모니터이다. 얼떨결에 1등상에 당첨이 되니 몸둘 바를 모른다. 우리 동기회에서 기증한 것을 다시 받아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대회를 위해 협찬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동문들이 머리에 스쳐간다. 맛난 먹거리와 상품, 찬조금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 분들의 감사함을 느끼며 1등 상품을 반납하고 재추첨에 들어간다. 모두들 뜨거운 박수로 환호를 보낸다. 가을 하늘의 맑고 푸르름과 더불어 웃음꽃이 활짝 핀 모습에 행복감을 느낀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동문들은 물론이고 참석은 못해도 마음으로나마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모교와 동문 사랑을 알기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대회를 무사히 치루게 되었다. 최선을 다해 모시려고 노력했지만 불편하고 미숙했던 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동문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대회를 마치게 됨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체육대회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제약사 동문 여러분과 각 지부회, 동기회, 실험반 동문회 및 동아리 회장님들과 교직원, 재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의 준비를 위해 몇 달 전부터 노심초사 수고하신 유대식 사무총장님과 한갑현, 김정호 사무부총장님, 강희윤 여동문회장님과 여자동문 여러분들, 명랑운동회 진행과 대회 행사물품 설치에 큰 도움을 주신 전광우 선배님과 멋진 색소폰 연주로 분위기 띄워주신 임형균 선배님, 그리고 대회 진행을 도와주신 박종문, 이병천, 조양연, 김보원 동문, 그리고 끝까지 남아 수고한 학생회 임원들과 약대 행정실 관계자분들과 동문회 사무실 박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알차고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향한 최고의 동문회가 되는 그 날까지! 중앙대학 약학대학 동문회여! 영원하라!

체육대회 성적

골프(지부) 1등 안양, 2등 성남, 3등 수원
골프(동기) 1등 26회, 2등 20회, 3등 28회
메달리스트 조의환(8회), 공동 2위 서경명(22회), 손병로(29회), 오대근(31회)
롱게스트 동코스 : 이강옥(26회), 서코스 : 유영후(7회)
니어리스트 동코스 : 한봉길(27회), 서코스 : 최광식(16회)
특별상 : 손동헌(1회) 명예교수, 김애경 (18회) 여동문

테니스(A) 1등 한갑현(26회), 조형진(28회)
2등 김승재(24회), 김용수(34회)
3등 상병준(9회), 이길만(20회)
테니스(B) 1등 이형진(7회), 이상우(26회)
2등 장원규(28회), 정의차(30회)
3등 김용희(7회), 정선종(32회)

족구/ 1등 안산, 2등 30회, 3등 약제반
윷놀이/ 1등 28회, 2등 약제반, 3등 18회
단체줄넘기/ 1등 약제반, 2등 약품물리반
배구공PK/ 1등 안양, 2등 28회
바둑/ 1등 이현희(22회)
2등 박영찬(12회)
3등 서명규 (7회)
종합우승/ 약제반
2위/ 안양
3위/ 28회동기회
최다참가상- 30회

중대 약대 부천 동문회 "유쾌한" 이야기

왜 유쾌한 이야기 이냐고요?

"유쾌한"을 모토로 중대동문회 부천지부의 2009년 새 집행부가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소식은 무조건 유쾌한 소식입니다.

2009년 3월에 구성된 어느 때 보다도 젊어진 임원단이 유쾌한 모습으로 의욕을 보이며 다양한 기획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보원 (34회) 지부장

물론 58학번을 필두로 한 여러 선배님들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 주시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쑥스럽지만 다음과 같이 부천 동문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 모임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기존 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나누지 못하는 동문들 간의 소소한 일상과 취미생활, 여행기와 사진 등을 공유하며 구하기 어려운 약들과 약국용품들도 나눠 씁니다.

스트레스 받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글과 음악 , 그리고 경제에 밝은 회원의 경제, 주식 등 부자되는 정보도 있답니다. 가끔씩은 쇼킹한 노출이 공개되는 곳, 포털사이트 Daum에서 http://cafe.daum.net/bccaupharm을 찾으시면 유쾌한 소식들이 기다립니다.(단, 실명 확인 후 정회원 가입됩니다)

두 번째, 모든 회원들 생일을 함께 축하해 줍니다.

동문회원들 생일에 축하케이크와 회원들이 홈피에 올린 축하 메세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회장님 친필 카드와 동문회 소식지도 함께 전달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은 자기 생일도 잊고 지내는 분들도 있는데, 동문회에서 보여준 작은 이벤트에 큰 기쁨을 받았다고 즐거워 하십니다.

약국에서 집에서도 직원들이나 가족한테도 위신이 제법 선다고...

세 번째, 동문회원 릴레이 약국 탐방.

어찌 보면 비밀스러운 나의 약국을 공개한다? 꺼릴 수

도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중대 동문들끼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거침없이 약국 경영 노하우부터 인생 철학까지 다 공개합니다.

약국탐방이 끝나면 인생 탐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족이야기, 인생이야기 등 평소 모임에서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벼운 술자리와 함께 벌어집니다.

다음번 탐방약국을 지정하면서 마치는 시간에는 항상 그날의 아쉬움과 다음번 만남의 설레임이 공존합니다.

어제 80학번 김유곤 선배님의 바른손약국을 다녀왔습니다.

김보원 회장님, 이강국 부회장님, 박재성 총무님, 윤지희, 김민경, 이연정. 이렇게 세분 선배님과 93 동기 세 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약국탐방을 위해 미리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하였고 기분 좋은 설레임으로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약국에 들어섰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와 조제실 안쪽으로 자리한 선배님만의 개인공간에서 볼 수 있었던 다양한 봉사활동의 흔적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배님의 안내로 약국을 둘러본 후 한 시간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국의 의미에 대해 "나의 놀이터" 라며 웃으시는 선배님의 모습이 참 좋아 보이셨고 약국에 대해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해 간 질문의 일부를 마무리하고 기대하던 2차장소로 옮겼고 가볍게 한 잔 기울이면서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강남에서 현재 역곡으로 옮겨 오신 후 18년간 운영해 오신 경영철학, 노하우, 개인적인 역사와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 등 자상하게 말씀을 이어가셨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탐방에 함께 동참해주신다는 약속도 해주셔서 더 감사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즐겁고 배울 것이 많았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탐방이 기다려집니다.....*^^*

총무님 두 분과 김민경, 이연정 두 사람이 함께 김선한 선배님과 함께 또 한 번의 유쾌한 선후배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을려고 디카도 준비하였는데 선배님 말씀을 듣다보니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약국에서만 몇 장의 사진을 찍어서 아쉽습니다. 사진을 올리면서 다시 선배님 사진을 보니 정말 친숙하게 느껴지고 저희한테 해주셨던 좋은 말씀들과 모자랐던 시간이 다시 떠오릅니다.

선한약국을 방문할 때 단골선배님께서 동문회의 산증인이시라고 말씀 하셨었는데 실제로 만나 뵙고 선배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천약사회, 중대동문회와 함께 해 오신 역사를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선배님의 어린 시절, 학창시절부터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던 외손주, 항상 함께 약국을 지키시는 사모님과의 만남, 결혼, 약국을 운영해 오신 모습, 약사라는 직업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모두 너무 즐거웠고 의미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후배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정기모임과 다양한 소모임 활성화

분기별 정기모임은 기본, 활성화된 온라인을 토대로 다양한 소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동문 들만의 몸보신(?) 모임, 삼복 더위 탈출을 위한 기습 번개 모임 등은 올해 이미 추진되었고, 선배님들끼리의 모임, 후배님들끼리의 모임 등 20대부터 70대까지 여러 연령대의 회원들을 연결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소모임을 계획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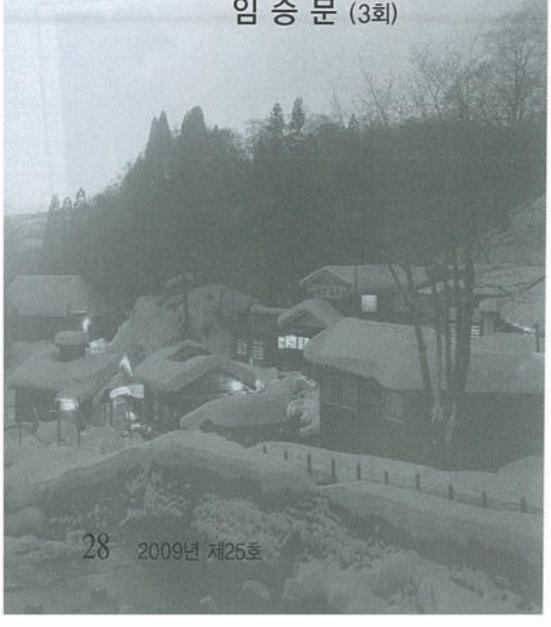
특히 76 임형균 동문의 무사독학 색소폰 연주회에도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즐행신(즐겁게, 행복하게, 신명나게)을 외치고 있으며, 건강하고 유쾌함을 하루하루 실천하는 중대동문회 부천지부의 밝은 미래와 무한한 발전을 다짐해 봅니다.

졸업 50주년 기념 日本北海道紀行

임 승 문 (3회)

中央大學校藥學大學 第3回 졸업 50주년을 맞이하여 日本 홋카이도(北海道)에 여행하기로 정해놓고 손꼽아 기다리던중 드디어 떠나는 날이 다가왔다. 거의가 부부동반이었으나 몇몇 친구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 외롭게 떠나야 하는 딱한 사정도 꽤 있었다. 다행이 같이 가기로한 39명 전원이 2009년 5월 11일 金容玉회장과 李秉均총무의 지성스런 배려와 저 멀리 미국에서까지 동참한 曺永萬부부가 함께하여 알파항공사(藥大7회 李亮憲사장)의 치밀한 주선으로 인천공항에서 별 탈 없이 출발하여 오후 2시경 치토세(千歲)공항에 도착하였다. 신종플루 덕분에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마치고 삿포로(札幌)를 거쳐 오타루(小樽)에 도착하여 거리를 산책하며 가리비구이와 정종대포도 한잔씩 곁들이면서 이국의 풍물을 맛보았다. 길가엔 머위풀과 산죽이 빽빽하게 자라고 먼산엔 아직도 잔설이 쌓여있는 북국의 풍경을 감사하며 노보텔호텔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쉬고나니 까마귀 한 쌍이 창밖에서 문안을 드린다. 그날은 시라오이(白老)의 아이누족 민속관을 구경하고 지고꾸타니(地獄谷)와 쇼와신산(昭和新山)등 화산의 매캐한 풍경을 관람하면서 오오누마(大沼), 고누마(小沼), 준사이누마(專菜沼)의 풍광을 차창을 통해 관람하며 도요야(洞爺)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온천욕이 꽤 즐거웠으나 柳林의 경미한 사고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였다. 그러나 늘 해학이 있고 호탕한 성격으로 오히려 일행을 웃기며 즐겁게 해 주었으니 다행이다. 도요야호(洞爺湖)의 밤 불꽃놀이며 청정한 호수, 물오리와 갈매기의 유희, 저 멀리 눈쌓인 요오테이산(羊蹄山)의 풍랑이 장관이었다. 다음날 유람선으로 호수를 한바퀴 돌아보고 하코다테(函館)를 거쳐 시카베(鹿部)에서 하룻밤을 쉬고 기차로 신케이가이교센(津輕海峽線) 54km의 海底터널을 빠져나와 아오모리(靑森)에 도착하여 대충 주마간산 격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고마키 온천장에서 한바탕 푸짐하게 뒤풀이를 하고 일본여행을 무사히 마감하였다. 늘 갈 때마다 느끼지만 깨끗하고 친절함은 무척 부러운 일이다. 친구들이여 경망스레 이게 마지막이라 말하지 말고 건강하게 즐기면서 다음 나들이도 궁리해 보세.

江村 林承文



13회(65년 입학) 동기회 졸업 40주년 행사

오-메!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붉은 감잎 날아와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메! 단풍 들것네.

40주년 행사 첫 안내문은 김영랑 시인의 "오-메! 단풍 들것네"로 초가을 노래를 서두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저녁 6시 JW 메리어트호텔에서 13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 얘기를 새기며 4번씩 바뀌어버린 40년 세월을 우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13회 멤버(회장 김종성) 17명이 머리 맞대고 의논을 시작한 것은 7월 정례 모임부터였다.

10년 전 작성된 주소록을 기초로 약사회 2009년 명부를 각 지역 준비위원들을 통한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벌써 15명이 세상을 등졌고 와병 중의 친구가 여럿 이었다.

행사 안내장 1회, 김회장과 본인, 또 회원 중 개인 연락망을 이용해 전화로 계속적 follow up이 개최일 하루 전까지 계속 됐다.

수시로 변하는 마음들, 형편들. 정말 20주년, 30주년, 40주년은 다르고 어려

이충식 (13회) 총무

워져갔다.

참석 독려는 이렇게 표현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냐" 라는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를 인용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누구를 위한 모임이고 동기회인지? 조금은 섭섭함과 어려움이 교차됐으나 우린 11/7일 JW메리어트에서 모였다.

은사님 아홉분을 모시고 해후의 장이 열렸다. 서로를 확인하고 잊어진 세월을 되돌리는 소중한 추억을 우리는 가슴 가득 안고 20대 푸른 날로 시간여행을 만끽한 날이었다.

우리의 50주년은 어떤 날 일까?

70 중반을 넘긴 황혼의 여린 날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감했다.

이 자리를 빌어 참석해 주신 은사님

동문회 윤대봉 회장, 동기들, 행사준비에 물심양면으로 동참 지원해준 친구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23회(75학번) 졸업 3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임 준 석 (23회) 동기회장

2009년 10월 17일 저녁 고종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했던 환구단의 고즈넉한 정경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조선호텔 2층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3회(75학번)동기회 졸업 3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는 행사장 뒤편 벽면에 1976년 2학년 때 남양주 마석 근처에 있는 백봉으로 약용식물 채집을 나갔을 때 찍은 단체사진이 큰 걸개그림으로 탈바꿈하여 걸려 있었습니다.

선배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귀밑머리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린 현재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정말 저런 시절이 있었나할 정도의 풋풋함을 간직한 채 여기저기에 우리들의 과거가 동화속의 주인공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벌써 유명을 달리한 동기들이 있고, 적성이 맞지 않아 다른 길을 찾아 떠난 몇몇 동기들의 기억이 희미한 안개 속에서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중년의 여유로움과 중후함 혹은 힘든 세파에 찌든 어깨 구부정한 슬픈 자화상의 야누스적인 모습으로 거기 우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세 차례 서신과 함께 가히 융단폭격 수준의 독려전화를 통해 얼굴 보기를 약속하기는 했으나, 늘 자주 보던 얼굴은 물론이고 피치 못할 선약이며 심지어는 약국 옮긴지 며칠 안 되어 채 정리도 못한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도저히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던 동기들까지 우정 먼 길 달려와 주어 이번 행사가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모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한덕룡 교수님을 비롯하여 김일혁, 김종갑, 손동헌, 이광표, 허인회, 신화우, 임철부, 김창종 교수님이 시간을 내주셨고, 모교 김대경 학장과 황완균 학부장, 윤대봉 총동문회장과 유대식 사무총장, 조찬휘 서울시약회장, 정명진 대약 부회장, 공무에 바쁜 김구 대약회장을 대리하여 신상직전 도봉구 약사회장이, 그리고 24회 동기회 이규삼 회장 등 내빈을 모시고 50여명의 동기들이 우정을 같이 했던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박희용 동기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공식행사에서 임준석 동기회장의 환영과 감사의 인사에 이어 내빈들의 축사와 참석하신 은사님들을 대표하여 한덕룡 교수님이 회고담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의례적인 선물을 사양하고 회장단에서 고심 끝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기념품을 은사님들께 전해 드렸습니다.

이어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마련된 비용을 아껴 모교와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500만원을 조성하여 새로 동문회를 맡아 젊은 후배들 참여라고 하는 대명제 달성을 위해 분투 노력중인 윤대봉 총동문회장님께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케이크 커팅과 함께 김일혁 교수님의 제의로 참석자 전원이 건배를 함으로써 헤어짐과 만남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행사 중간에 온누리약국체인의 박종화 사장이 적지 않은 시간과 공력을 들여 제작한 슬라이드 쇼를 통해 입학 후의 해맑은 모습에서부터 경기도 마석 근처 백봉으로의 약용식물 채집, 2학년 때 실시된 한려수도 방면으로의 수학여행, 3학년 학생회를 책임지던 시기에 어렵사리 엮어낸 합창발표회, 그리고 졸업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해 준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영식 동기의 사회로 2부 행사가 시끌벅적 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며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번잡한 뷔페 대신 정갈한 코스 요리로 구성된 공식 만찬에 곁들여 여자 동기들이 준비한 맛깔스런 안주와 과일을 함께 나누며 몇 순배씩 도는 술잔 속에서 다시 한 번 같은 길을 가는 동기들의 속마음을 확인하며 내내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흥에 겨운 노교수님들의 덕담과 함께 애창곡이 이어졌으며, 멀리 캐나다에서 일부러 일정을 조정하여 참석해 준 윤정례동기를 비롯하여 대만에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노보노디스크 강한구 사장, 그리고 최의환, 정원국, 강호영, 은성기, 나용태, 임창영을 위시하여 자주 못 보던 지방거주 동기들의 근황에 더해 노래도 한 자락씩 하며 흥을 고취시켰습니다. 수석부회장인 조병훈의 깜짝 색소폰 연주가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낸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겠지요.

늦은 10시 반쯤 공식행사를 종료하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만의 공간을 제공해 준 근처 노래방에서 그야말로 허리띠와 함께 일상에 찌든 걱정거리까지 다 풀어놓고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벽 2시가 좀 지나 끝까지 남아있던 12명의 동기가 근처 식당으로 옮겨 짜디짠 김치찌개를 마다않고 소주잔을 기울인 연후에야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방에서 온 동기들을 위해 조선호텔에 방 2개를 준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한다고는 했지만, 늘 지방 동기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앞설 뿐입니다.

내년에는 재야 화가로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천안의 방용남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가꾼 정원으로 동기들 모두를 초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으며, 동기회 자체에서 준비한 선물에 더해 파마트로닉 이승하 사장의 따뜻한 동기애로 포장된 선물세트와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각자 생업의 현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지만 지방 동기들에게 느끼는 고마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행사에 직접 참여를 못하면서도 관심과 애정이 듬뿍 배어있는 회비를 보내준 동기들이 아니었으면 이 행사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 기 명 (18회) 본지 편집위원

章山 허인회 교수의 中英對照

陶淵明의 詩選集에서

歎白髮(탄백발): 백발을 한탄하며

허 인 회 (4회) 명예교수

我年一何長(하년일하장) 내 나이 얼마인가
鬢髮日已白(빈발일이백) 귀밑머리 나날이 하야지네
俛仰天地間(면앙천지간) 천지간에 내 머리 끄덕이고
能爲幾時客(능위기시객) 얼마나 이세상에 더 머무는 객이 될까
惆悵故山雲(추창고산운) 슬픈 옛 산의 구름 같이
徘徊空日夕(배회공일석) 밤 낮 쓸데없이 떠돌고 있네
何事與時人(하사여시인) 오늘날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이 없고
東城復南陌(동성복남맥) 동으로 성이있고 남으로 농지가 있을뿐

Moaning about My White H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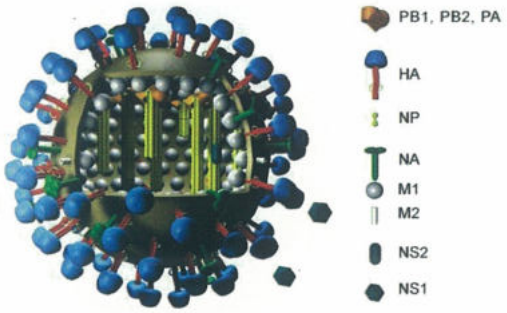
How old I am now !
Each day my hair is white.
My head nods between heaven and earth.
How much longer can I lodge in the world?
Near my gloomy home a mountain cloud
circle the meaningless day and night.
A city to the east. Farmlands down south.
I have nothing in common with people today.

신종플루가 행세하는 세상

대략 난감하다. 김치와 마늘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 없다던 신종플루[new influenza A (H1N1)]에 의한 사망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그 기세가 좀체 수그러들 줄 모른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이럴 때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약사님에게 뭔가 시원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혼란은 여전하며, 꼭 안 먹더라도 타미플루 몇 알 있어야 마음이 놓인단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H1N1란 암호코드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정말 타미플루는 예방효과가 없는 것일까?

H와 N의 조합에 따라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 탄생

미리 말하자면 신종플루는 말이 '신종'이지 사실은 가장 '구형'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은 H1N1형, 1957년 아시아 독감은 H2N2형, 1968년 홍콩 독감은 H3N2형, 그리고 1997년 발생한 조류 독감(AI)은 H5N1형이다. 숫자가 작은 것이 오래된 것이고 최근으로 올수록 숫자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암호와 같은 H1N1의 의미를 해독해 보자.

일단 이번에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종플루는 RNA 타입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A형, B형, C형의 세 종류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A형에 속한다(☞ influenza A). A형은 다시 그 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두 종류의 단백질, 즉 헤마글루티닌(H)과 뉴라미니다제(N)에 따라 다양한 아형(subtype)으로 나눠진다. 이 두 가지 단백질이 바이러스의 병원성(독성 혹은 전염성)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다.

■ **헤마글루티닌(HA; H)** :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마치 버섯 보이는 돌출물로,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 표면에 달라붙기 위해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수용체)을 인식하여 바이러스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 **뉴라미니다제(NA; N)** :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마치 작은 대못처럼 보이는 돌출물로, 세포 내에서 증식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세포 바깥으로 빠져 나와 다른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도록 감염세포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가위 역할을 한다.

이들은 발견된 순서대로 숫자를 붙인다. 말하자면 H1N1형은 어찌 보면 가장 오래된 유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16개의 H 아형과 9개의 N 아형이 서로 조합하여 수많은 아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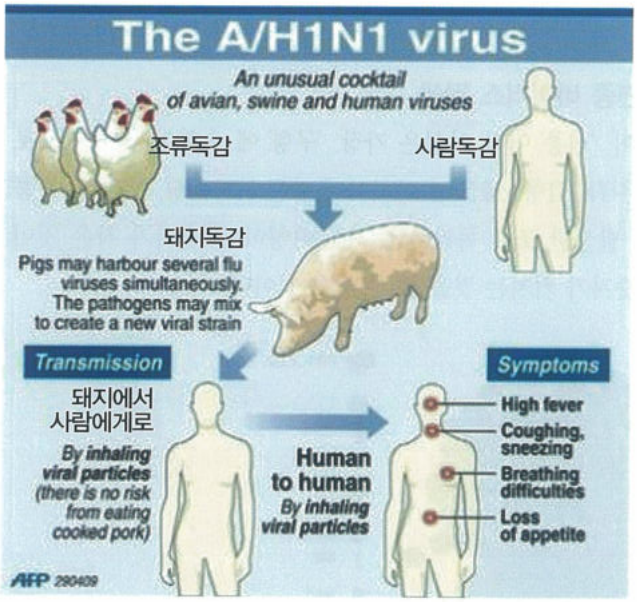
박 희 용 (23회) 편집위원

탄생되며(산술적으로만 조합해도 144종의 변종이 가능함), 이들 단백질이 조금씩 변이를 일으키면 다시 새로운 변종 인플루엔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신종' 플루인가

원래 바이러스는 종특이성이 있어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만,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조류에게만, 그리고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돼지에게만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자연의 섭리가 깨진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소위 '종간 장벽'을 뛰어 넘어 원래 조류 전용인 A형 인플루엔자가 돼지나 말과 같은 포유동물이나 사람에게도 전파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이 변종 인플루엔자가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파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좀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8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단백질을 생성한다. 어떤 유전자는 헤마글루티닌을, 또 다른 유전자는 뉴라미니다제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그 8개의 유전자가 사람이냐 돼지냐 조류냐에 따라 역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H와 N을 생성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앞서 예를 든 1918년 창궐했던 스페인 독감의 주범인 H1N1형은 8종의 유전자가 모두 조류 특유의 것이지만, 2009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유전자 8종은 조류와 사람과 돼지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뒤섞인 것으로, 따라서 외형상 같은 H1N1형이라 해도 기본적인 유전자의 구성이 완전히 새로운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신종'이란 말을 붙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타미플루, 미리 먹는다고 예방 효과 없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다. 타미플루(oseltamivir)를 건강한 사람이 미리 먹는다고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없다. 백신과 다르게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이러스의 두 가지 표면 단백질 중 증식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에서 빠져나가는데 가위 역할을 하는 뉴라미니다제(N)라는 효소에 작용한다. N이 가위 역할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위(sialic acid)에 끼어들어가 효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 마치 열쇠구멍(N의 작용점)에 성냥개비 같은 이물질(타미플루)을 끼워 넣어 열쇠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가위로서의 기능상실)과 같은 이치이다.

한마디로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이것이 전파될 때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몸 안에 바이러스가 없으면 당연히 효과도 없다. 미리 먹어봤자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소변을 통해 모두 빠져나간다. 멀쩡한 사람이 감염될 때까지 매일 먹는다는 것은 따라서 넌센스다.

개인위생 준수가 답이다

초기 대응을 너무 안이하게 함으로서 일반인들에게 필요이상의 공포심을 유발한 신종플루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극단적으로 같은 기간 계절성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인지, 그 기간에 사망한 교통사고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혹여 자살한 사람들은 챙겨 보았는지 묻는다.

당연히 근거 없는 낙관론에 휩싸여 과소평가해서는 지금의 혼란이 더욱 더 가중될 것이다. 변종이란 괴물 앞에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겠지만, 사망 사례는 당뇨병이나 심부전 등 중중의 기초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초기대응이 늦어져서 대부분 발생하는 점을 인식하자.

평상심을 가지고 개인위생에 노력하여 '흐르는 물만 보면 손을 씻거나, 제 돈 들여 굳이 가지 말라는 위험지역으로 여행가는 따위의 우를 범하지 않는다면' 바이러스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혹은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다행히 가볍게 앓는 정도로 그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어도 좋을 것이다. 면역기능을 회복하여 최대한 빨리 바이러스를 내쫓는 것이 우리 몸이 익숙한 방식이라는 점을 고맙게 생각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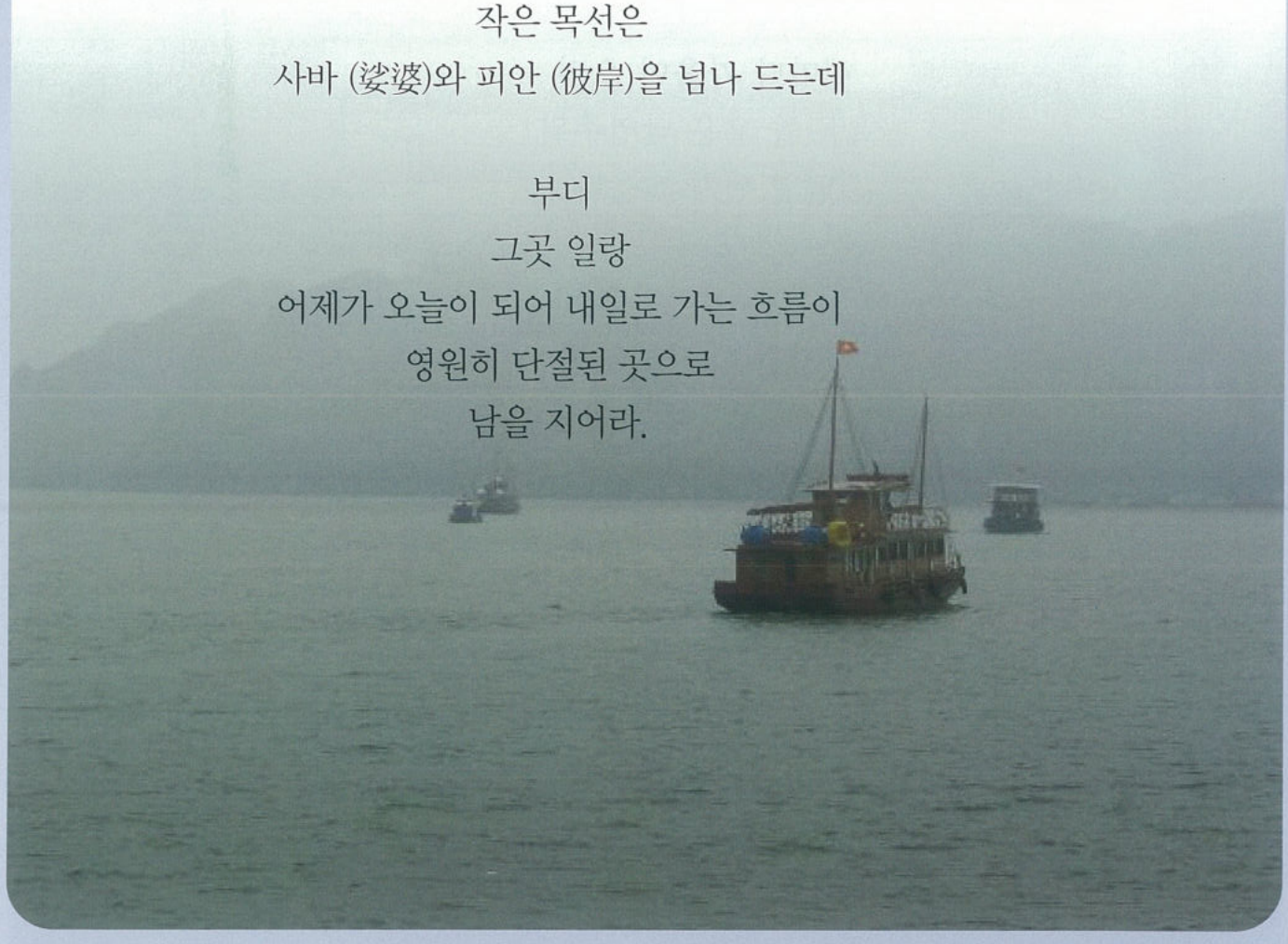
섬

김 종 기 (18회)

희뿌연 구름 끝 자락
살포시
머리에 이고
하늘이 내려와 닿은 곳
잔 물결 속에
도원향 (桃園鄕)이 떠있다.

흩날리는 깃발에
온갖 번뇌 담아내어
작은 목선은
사바 (娑婆)와 피안 (彼岸)을 넘나 드는데

부디
그곳 일랑
어제가 오늘이 되어 내일로 가는 흐름이
영원히 단절된 곳으로
남을 지어라.



낙엽

조 현 인 (8회)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본다
자기몫을 다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노래하며
사라지는 나뭇잎들

춤추며 무대를 떠나는 舞姬처럼
나뭇잎들의 마지막 공연을
쓸쓸한 맘으로 바라본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聖殿뜰 고운 낙엽주워
낙엽 편지 띄운다

낙엽은 살아있음에
감사를 느끼게 한다
단풍나무 한 그루는 삶의 빛깔과 모습이
한 人間의 생애를 반영해 주는듯
가을바람이 낡은 잎을 뿌리면
봄은 다시
새로운 잎을 낳으리……

▲ 6월 10일 3회 동기회 모임 오전 12시
- 장 소 : 종로 삼일빌딩 31층
- 동문회 발전기금 2,000,000원

8월 18일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 면담 오후 12시
- 장 소 : 동문회관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문재빈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 유대식 사무총장
- 예비후보 : 신상직(17회), 정명진(18회), 임준석(23회), 김영식(23회)

9월 5일 사무총장단회의 오전 12시
- 장 소 : 동문회관
- 안 건 : 안건심의
  1. 하반기 동문회 행사일정 공지안내
     1) 전지초도이사회 준비
     2) 모교의 날 체육대회 준비
  〈기타 토의사항〉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유대식 사무총장, 김정호 사무부총장

7월 2일 사무총장단회의 오후 2시
- 장 소 : 동문회관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유대식 사무총장, 한갑현, 김정호 사무부총장

7월 10일 대한약사회장예비후보 면담 오전 12시/ 1시 30분/ 2시 30분
- 장 소 : 동문회관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최종묵 고문, 김명웅 수석부회장, 유대식 사무총장
- 예비후보 : 김구(12회) 대한약사회장, 조찬휘(15) 서울시약사회장, 박기배(22회) 경기도약사회장

7월 16일 학장 면담 오후 7시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김대경 학장, 손의동 교수, 유대식 사무총장

7월 18일 ROTC동문회 오후 6시

7월 28일 건일제약 김용옥(3회) 회장 오전 11시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유대식 사무총장

7월 28일 일동제약 윤원영(5회) 회장 오후 2시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유대식 사무총장

7월 28일 일양약품 정도언(14회) 회장 오후 3시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유대식 사무총장

7월 30일 한불제약 정승환 회장 오후 2시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유대식 사무총장

7월 30일 한미약품 임성기(6회) 회장 오후 3시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유대식 사무총장

▲ 9월 11일 편집위원회의 오후 7시
- 장 소 : 동문회관
- 안 건 : 제25호 동문회보 제작준비의 건
- 참석자 : 김기명 위원장, 홍승표, 유대식, 박희용, 조양연 위원

▲ 9월 13일 제39회 모교의 날 테니스대회 오전 10시
- 장 소 : 안산시립테니스장

Event

▲ 9월 28일 제 39 회 모교의 날 골프대회 오전 7시
• 장 소 : 88cc

▲ 9월 29일 2009년도 2학기 장학금수여식 오후 3시
• 장 소 : 모교교수 세미나실

▲ 10월 17일 제 23 회 졸업 30주년 기념식 오후 7시
• 장 소 : 조선호텔
• 동문회 발전기금 5,000,000원

▲ 10월 18일 제 39 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오전 10시
• 장 소 : 모교 대운동장

10월 27일 고문단회의 오후 4시
• 장 소 : 동문회관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김기홍, 오세형, 최종묵, 김채윤, 임완호, 유영후, 권혁구, 유정사 고문, 유대식 사무총장, 한갑현 사무부총장

▲ 11월 7일 13회 졸업 40주년 기념식 오후 6시
• 장 소 : 메리어트호텔 3층
– 동문회 발전기금 5,000,000원

▲ 11월 21일 1회 동기회 정기총회
• 장 소 : 모교교수 세미나실

발전기금 조성 내역(기수별)

총 31억 8천 4십 5만 9천원 (2009. 10. 8까지)

교 수 총 21,960 만원

〈교내〉 손의동(1200), 임철부(1,000) 김미영(1000),
최영욱(1000), 이민원(1000) 김창종(700),
염정록(700), 홍순각(600) 이도익(500),
임채욱(500), 김대경(500+1000) 황완균(500),
김하형(500+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천영진(500), 손동헌(500) 이광표(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황광우(500),
한상범(500), 이재휘(500) 최형균(500),
조사연(500), 김종갑(500) 오경택(500),
민경훈(500), 민혜영(500) 김현정(500)

〈타교〉 김진학(1000), 제현동(500), 김동석(300)
오유진(300), 주왕기(300), 임세진(30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정지훈(200), 한성순(100), 김형춘(360)

학 생 총 5,350 만원

역대 회장단 총 31,400 만원

조의환(11000), 권혁구(1000), 유영후(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박호일(1300)
정재일(500), 이기안·노신희(500), 임상묵(1000)
김연희(500), 이규진(500), 유정사(10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열(500)
김승재(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정찬헌(400+1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흥(300)

단체 기부 총 9,390 만원

- 중삼친목회(300)
-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 7회 동기회(500)
- 64예중회 회원일동(100)
- 기업체후원(700)
- 1회 동문회(300)
- 2회 졸업생(200),
- 약대3기동기회(200),
- 미주(L.A.) 3회 동기회(50)
-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 7회 약우회(500),
- 약대기금(3200),
- 약품물리화학동문회(1740)
- 중약대11회 40주년 기념(300)
- 12회 동문회(500),
- 서울공직중대약우회(200)

학부모 및 기타 기부 총 60,800 만원

- 한충강('02 한인빈 학부모, 300)
- 정형식(60,000)
- 오호정(300)
-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100)
- 중앙대 50계단회(대표:정영복) (100)

개인·부부 동문 총 240,660만원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1회〉 손동헌(500), 이광표(500), 오유진(300)
홍흥만(300)
〈2회〉 고두흔·박명자(700), 홍순각(600) 김길수(300),
황인규(300), 황재수(200), 한성순(100)
〈3회〉 김용옥(35000), 한만우(1000), 김석자(300),
조영만·이정자(50)
〈4회〉 김기호(500), 허인회(500), 김현용(300)
박노일(300), 이연수(300), 천홍기(300),
〈5회〉 이해석·강태일 (1000) 박명자·고두흔 (700), 이송학(300)
정훈교(100)
〈6회〉 임철부(1000),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종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한(300), 유상열(300), 추의호(300)
홍병석(300), 이준장(100), 홍성호(100)
이현영(300)
〈7회〉 이기황(1150), 유영후(1000), 강승안(500)
김옥남(500), 이양헌(500), 정재일(500),
이기안·노신희(500), 김영일(300), 김정부(300),
김정웅(300), 김정자(300), 박명신(300),
박옥규(300), 유윤자(300), 이능세(300),
인고길(300), 임종홍(300), 차승현(300),
한철희(300), 정연흥(300), 조경배(300),
권기동(100), 이준종(60), 이정자·조영만(50)
〈8회〉 이백천(1500), 임상묵(1000), 김형이(500),
한석원(500), 최병준(400), 최재욱(300),
문옥자(300), 박성애(300), 박찬수(300),
윤주섭(300), 이조열(300), 장영자(300),
정재용(300), 주왕기·김희자(300), 허근희(300),
김홍자(300), 배영애(100), 신현우(100),
조의환(11000)
〈9회〉 권혁구(1000), 김홍래(1000), 김영부(500),
서황석(500), 이규진(500), 노신희·이기안(500)
상병준(300), 이근배(100), 박성학(500)
〈10회〉 방순환(12000), 박호일(1300), 유정사(1000),
김광일(500), 이대윤(300), 정영기(300),
조규동(300), 이양원(300), 장영조(300),

정송수(300), 정수길(300), 김삼균(300),
서정목(300)

〈11회〉 정덕호(500), 김창종(500), 황문상(500),
황공용(500), 홍금자 · 남기탁(500) 김승업(300),
민대식(300), 박상희(300), 박찬희(300),
김정길(100), 최옥출(100), 이철규(50),
송병기(100)

〈12회〉 박영찬(1000), 김용환(1000), 최덕구(1000)
심재웅 · 구옥자(1000), 김송배(1000), 황순오(1000),
김 구(1000), 이성우(500), 남기탁 · 홍금자(500),
강옥희(500), 우준하(500), 노덕재(300),
우홍길(300), 염윤기(300), 이정희(300),
이호섭(300), 최병호(300), 김대건(300),
문혜성(240), 최창묵(100), 민명임(100),
김초성(100), 이원주(100), 조택상(500)

〈13회〉 안병식(1000), 이종각 · 박종애(500), 문재빈 · 김애련(500),
서국진(500), 조성복 · 홍순경(500), 김종성(400),
박동규(300), 윤창현(300), 조중목(300),
김병현(500), 서효석(300), 김신미(10)

〈14회〉 김명웅(1000), 정도언(1000), 김종열(500),
윤대봉(500), 故이규식(500), 김원순(300),
정진모(300), 박기진(300)

〈15회〉 조찬휘(500), 김용의(300), 석대은(300),
안민철(300), 이인석(300), 위혜주(300)
구옥자 · 심재웅(1000), 박영경(300), 황인영(300)

〈16회〉 강명채(500), 홍순경 · 조성복 (500), 박종애 · 이종각(500),
장건(300), 최광식 · 전순희(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우상규(300), 한인희(300)
조기현(300), 윤영로(200), 김성광(100)
권희문(100)

〈17회〉 김인형(500), 선우영환 · 방금숙(500), 김민수(500)
신상직(500), 김대희(400), 양희익(300)
유종관(300), 장재인(300), 전상훈(300)
정갑진(300), 주완표(300), 최해광(300)

〈18회〉 강응모 · 성낙순(500), 김윤순(500), 정명진(500)
김기명(300), 조중형(300), 김애경(300)
김청길(300), 박계환(300), 남애숙(200)

〈19회〉 김경오(500), 권창호(500), 신성희(500)
권영훈(300), 김동희(300), 박효식(300)
옥태석(300), 이경옥(300), 이창욱(300)
최종숙(300), 유환성(300), 권광일(300)

〈20회〉 임경원 · 이현숙(1,000), 박기배(600), 방금숙 · 선우영환(500),
정찬현(500), 이상일(500), 김현태(500),
김홍진(500), 김영섭(330), 강혜옥(300),
김종갑(300), 송열호(300), 서종원(300),
송창수(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신규(300), 이극선(300),
임구래(300), 정영수(3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정영수(300),
김형춘(360)

〈21회〉 이세진(500), 백기홍(500), 이상일(500)
백운경(550), 박제천(500), 김중효(500)
이병규(500), 박전희(500), 지기봉(500)
이상준(500), 최병철(500), 장철숙(100)
홍종오(500), 김정기(300), 김성만(300)
한성희(300), 안병헌(300), 신상길(300)
송진용(300), 이진배(300), 유승률(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어경남(300)
김대일(300), 강성무(300), 이규섭(300)
전명선 · 김민숙(600)

〈22회〉 손의동(1200), 장용운(800), 정진호 · 강명희(500),
장상대(500), 김홍진(500), 고석순(500),
이준상(500), 유대식(500), 오황영(400),
한만영(360), 강희윤(300), 김철수(300),
박동우(300), 전일오(300), 이정석(300),
최광훈(300), 심재호(300), 이영욱(300),
이상돈(100), 전명선 · 김민숙(600)

〈23회〉 박종화(1,050), 권석형(500), 이도익(500)
공인호(300), 김수종(300), 김영식(300)
김항만(300), 양재업(300), 정원국(300)
이승하(300), 이원길(300), 임상규(300)
임준석(300), 정덕기(300), 조근태(300)
강호영(100), 이정대(100), 박희용(100)
나용태(300)

〈24회〉 최영욱(1000), 윤규형(500), 김관식(500)
최재윤 · 김윤경(500), 조중래(500), 김승재 · 김희식(500),
임무호(500), 함삼균(350), 이범도(310),
오동근(300), 윤원철(300), 이광섭(300),
이영주(300), 정상수(300), 김상현(300),
홍용기(300), 황규진(300), 함한성(300),
이규삼(100), 김태두(300)

〈25회〉 이민원(1,000), 손현우(600), 성낙순 · 강응모(500),
이재희 · 김은진(500) 조석현 · 임흥옥(500), 위성건(500),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희섭(300),
이내흥(3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김춘규(400), 권세형(300)

〈26회〉 심상수(500), 이창훈 · 이숙희(500) 황완균(500),
하재일(500), 김안식(400), 김영후(300),
라종우(300), 진희억(300), 최민규(300),
문형철(300), 백낙기(300), 선우일원(300),
이영준(300), 이종량(300), 조용백(300),
김학철(300)

〈28회〉 임채욱(500), 이숙희 · 이창훈(500), 김윤경 · 최재윤(500),
김유곤(500), 고재호(120)

〈27회〉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흥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최면용 각각 300씩 (총 2,400),
박수길 · 이정애(500), 방만성 · 조순연(500), 김영혜 · 최평배(500),
최기선(310), 곽순자(300), 김정호(300),
남상진(300), 박영달(300), 변영신(300),
안희영(300), 양건모(300), 유기조(300),
오영돈(300), 현기원(300), 홍인숙(300),
이무택(300), 최충식(300), 이선애(100),

조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cau.ac.kr)나 동문회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희식 · 김승재(500), 이영주(500), 김광선(300),
김미경(300), 김영희(300), 안희규(300),
양덕숙(300), 조효금(300), 이병천(300),
이용해(300), 이해룡(300), 임세진(300),
장원규(300), 전금용(300), 조상오(300),
신길득(300), 장원규(50), 한용문 · 김미자(300),
박용석(100)

〈28회〉 고재호(120)

〈29회〉 김은진 · 이재희(500), 이 준(310), 강대용(300),
강철선(300), 김영자(300), 손병로(300),
안성진(300), 유종운(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서경원(300), 이 철(300),
장우성(300), 정진호(300)

〈30회〉 김광식 · 윤기숙(500), 이장무 · 김영희(500), 조순연 · 방만성(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신일균(300),
김현학(300), 이인자(300), 장부자(300),
조덕희(300), 천세영(300), 최병원(300),
황유세(300), 고석일(300), 박종진(300),
서봉호(100)

〈31회〉 이현숙 · 임경원(1,000), 김하형(500), 김진흥(300),
변동성(300), 박건규(50)

〈32회 〉 고은미(300), (300), 조양연(300),
서수경(300), 채영주(600), 서용욱(240)

〈33회〉 이재휘(500), 임희원(300), 강석연(300),
박재훈(240)

〈34회〉 민성철(300), 배규환(300), 이선우(300)
한일권(300), 김영미(20)

〈35회〉 황광우(500), 곽정근(300), 권준한(300)

〈36회〉 안영윤(300), 우경아(300), 임성호(300)
김동석(300), 김용구(300), 박선영(200)
방극상(50)

〈37회〉 정병욱(300), 방준석(300), 정지훈(200)
오상희(100), 김학림(100)

〈38회〉 오경택(500), 박웅석(300), 조재형(300)
제현동(500), 박양혜(100)

〈39회〉 민경훈(500), 박종호(300), 박종혁(300),
양성준(100)

〈40회〉 박성욱(500), 한국약품(이병두, 300)

〈41회〉 구영준(300)

〈42회〉 이창경(100)

〈43회〉 신명숙(300), 강규태(400), 김중호(100)

〈44회〉 김수길(300), 문상희(100)

〈49회〉 김원호(500)

지부별 통계 (단위 : 만원)

〈서울강남구 지부 19명〉

방순환(1200), 윤대봉(500), 이 준(310), 김현용(300),
박옥규(300), 김홍자(300), 정송수(300), 이정희(300),
정진모(300), 이인석(300), 김광식(300), 유대식(500)
황규진(300), 서경원(300), 신명숙(300), 이근배(100),
정훈교(100), 김태두(300), 박성학(500)

〈서울강동구 지부 12명〉

조성복 · 홍순경(500), 김삼균(300) 김용의(300),
어경남(300), 오동근(300), 강철선(300), 이선우(300),
권준한(300), 안영윤(300), 박웅석(300), 조중목(300),
김홍진(500)

〈서울강북, 도봉구 지부 4명〉

심재웅 · 고옥자(1000), 신상직(500), 조상오(300), 조효금(300)

〈서울강서, 양천구 지부 15명〉

유상열(300), 박찬수(300), 민대식(300), 노덕재(300),
박효식(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최두주(300),
이용해(300), 이종민(300), 강대용(300), 임성호(300),
김애경(300), 김영미(20), 김민수(500)

〈서울관악구 지부 7명〉

이기안 · 노신희(500) 문재빈 · 김애련(500), 김종열(500),
박석동(500), 우상규(300), 안희영(300), 문혜성(240)

〈서울마포구 지부 3명〉

오영돈(300), 양덕숙(300), 장원규(50)

〈서울광진, 성동구 지부 5명〉

양희익(300), 김영식(300), 유승률(300), 권희문(100),
최창묵(100)

〈서울구로,금천구 지부 6명〉

이해석 · 강태일(1000), 정진호 · 강명희(500), 김경희(300),
이호섭(300), 이경옥(300), 오상희(100)

〈서울노원구 지부 3명〉

방만성 · 조순연(500), 이병규(500), 김수길(300)

〈서울동대문구 지부 3명〉

김경오(500), 김종구(300), 신정숙(300),

〈서울동작구 지부 5명〉

고두흔 · 박명자(700), 이종각 · 박종애(500), 안병헌(300),
조기현(300), 김영희(300)

〈서울서대문구 지부 5명〉

한석원(500), 정명진(500), 황순오(1000), 유인석(300),
문옥자(300)

〈서울서초구 지부11명〉

황공용(500), 추의호(300), 이능세(300), 장영자(300),
안민철(300), 김기명(300), 박계환(300), 이규삼(100),
이선애(100), 이준장(100), 김광일(500)

〈서울성북구 지부2명〉

조찬휘(500), 유종관(300)

〈서울송파구 지부 7명〉

이규진(500), 김영부(500), 위성건(500), 김영일(300),
김미경(300), 진희억(300), 김원호(500)

〈서울영등포구 지부 6명〉

권혁구(1000), 유정사(1000), 이상일(500), 김대일(300),
전금용(300), 강규태(400)

〈서울용산구 지부 5명〉

故이규식(500), 박명신(300), 이조열(300), 배영애(100),
서봉호(100)

〈서울은평구 지부 10명〉

임상묵(1000), 윤주섭(300), 정재용(300), 정갑진(300),
선우일원(300), 배규환(300), 곽정근(300), 우경아(300),
정병욱(300), 문상희(100)

〈서울종로구 지부 12명〉

황문상(500), 강옥희(500), 최광식 · 전순희(500),
전상훈(300), 주완표(300), 조중형(300), 임준석(300),
함한성(300), 이해룡(300), 이병천(300), 최면용(300),

〈서울중구 지부 3명〉

박영찬(1000), 조규동(300), 조근태(300)

〈서울중랑구지부 2명〉

한인희(300), 정덕기(300)

〈인천시 지부 23명〉

유영후(1000), 선우영환 · 방금숙(500), 조석현 · 임흥옥(500),
박제천(500), 지기봉(500), 신상길(300), 이양헌(500),
김대희(400), 장용운(800), 윤춘수(300), 장재인(300),
전명선 · 김민숙(600), 김수종(300), 김안식(400), 문형철(300),
최병원(300), 김현학(300), 김동희(300), 전명희(300),
김용구(300), 고석일(300),서용욱(240), 이경숙(50)

〈경기 군포시 지부 1명〉

이영주(500)

〈경기 김포시 지부 1명〉

김종성(400)

〈경기 동두천시 지부 1명〉

최광훈(300)

〈경기 고양시 지부 13명〉

김홍래(1000), 이재희 · 김은진(500), 박기배(600),
신성희(500), 김춘규(400), 함삼균(350), 김수길(300),
이연수(300), 한용문 · 김미자(300), 홍인숙(300),
박선영(200), 박건규(50), 방극상(50)

〈경기 광명시 지부 16명〉

안병식(1000), 김관식(500), 김형이(500), 최기선(310),
이송학(300), 인고길(300), 이양원(300), 김병무(300),
공인호(300), 임상규(300), 장부자(300), 고은미(300),
민성철(300), 송진용(300), 박재훈(240), 김중호(100)

〈경기 부천시 지부 5명〉

이창훈 · 이숙희(500), 김유곤(500), 김미영(300),
임희원(300), 고재호(120)

〈경기 성남시 지부 16명〉

김 구(1000), 손현우(600), 김인형(500), 최병호(300),
서종원(300), 강성무(300), 김철수(300), 김항만(300),
윤원철(300), 변영신(300), 서정목(300), 박상희(300),
유기조(300), 변동성(300), 박종호(300), 이영준(300)

〈경기 수원시 지부 19명〉

임경원 · 이현숙(1000), 김현태(500), 이세진(500),
강응모 · 성낙순(500), 채영주(600), 김영혜 · 최명배(500),
김청길(300), 이내흥(300), 김영후(300), 김영자(300),
홍흥만(300), 김정자(300), 권세형(300), 한일권(300),
이무택(300), 최충식(300), 정연흥(300), 윤영로(200),
신현우(100)

〈경기 시흥 지부 4명〉

조양연(300), 상병준(300), 유종윤(300), 장우성(300)

〈경기 안산시 지부 15명〉

김승재 · 김희식(500), 최재윤 · 김윤경(500), 이범도(310),
김석자(300), 이창욱(300), 박복자(300), 김덕진(300),
오순용(300), 오흥설(300), 이상필(300), 이창오(300),
한봉길(300), 장원규(300), 이현수(300), 서효석(300)

〈경기 구리시 3명〉

최덕구(1000), 황인규(300), 김희섭(300)

〈경기 과천시 1명〉

강희윤(300)

〈경기 안양시 지부 22명〉

정찬헌(500), 안병한(300), 박동규(300), 위혜주(300),
최해광(300), 이극선(300), 이신규(300), 임구래(300),
현기원(300), 박영달(300), 양건모(300), 안희규(300),
안성진(300), 이 철(300), 손병로(300), 신일균(300),
김진흥(300), 조용백(300), 민명임(100), 이상돈(100),
이철규(50), 이상준(500)

〈경기파주시 지부 1명〉

권창호(500)

〈경기평택시 지부 7명〉

박수길 · 이정아(500), 김영섭(330), 김정부(300),
한철희(300), 최운환(300), 양재업(300), 라종우(300)

〈경기 오산시 1명〉

이원길(300)

〈경기 용인시 2명〉

김광식, 윤기숙(500), 조택상(500)

〈경기 하남시 2명〉

한성희(300), 이현수(300)

〈경기 화성시 4명〉

송창수(300), 이정석(300), 김정호(300), 이진배(300)

〈경기 포천시 2명〉

차승현(300),나용태(300)

〈전북지부 1명〉

김종갑(300)

〈울산광역시 1명〉

이정대(100)

〈경북칠곡군 지부 1명〉

유환성(300)

〈경북김천시 지부 6명〉

심재호(300), 최재욱(300), 김성만(300), 김길수(300),
김정기(300), 조경배(300)

〈경북문경시 지부1명〉

이창경(100)

〈경북안동 지부1명〉

임무호(500)

〈경북의성군 1명〉

전일오(300)

〈대구 광역시 7명〉

김용환(1000), 장상대(500), 우준하(500), 김윤순(500),
백기홍(500), 최종숙(300), 남애숙(200)

〈대전시지부 3명〉

이규섭(300), 고석순(500), 홍종오(500)

〈전북 김제시 1명〉
최병준(400)
〈충남 보령시 1명〉
정덕호(550)
〈충남 홍성시 1명〉
조덕희(300)
〈충남천안시지부 3명〉
이장무 · 김영희(500), 김선기(300), 최옥출(100)
〈충남아산시지부 1명〉
백운경(500)
〈충북제천시지부 3명〉
하재일(500), 홍성호(100), 송병기(100),
〈경남 창원시 1명〉
김광선(300)
〈경남 밀양시 4명〉
정용국(300), 김대건(300), 박영경(300), 박종진(300)
〈부산시지부 26명〉
이백천(1500), 홍금자 · 남기탁(500), 조중래(500),
우홍길(300), 김원순(300), 옥태석(300), 강혜옥(300),
차재근(300), 송열호(300), 이영주(300), 김상현(300),
백낙기(300), 이종량(300), 남상진(300), 황유세(300),
박은미(300), 김정길(100), 김초성(100), 박용석(100),
강호영(100), 장철숙(200), 권기동(100), 이현영(300),
황인영(300), 김송배(1000),이원주(100),
〈제주지부 3명〉
김병현(500), 오황영(400), 박기진(300),
〈강원지부 4명〉
김정웅(300), 이인자(300), 김학철(300), 신길득(300)
〈미주지부 10명〉
이기황(1150), 서황석(500), 김옥남(500), 박성애(300),
조재형(300), 김성광(100), 김학림(100), 이준종(60),
조영만 · 이정자(50), LA3회 동기회(50)
〈병원 5명〉
이대윤(300), 김승업(300), 박찬희(300), 윤창현(300),
이광섭(300)
〈학계 42명〉
최영욱(1000), 임철부(1000), 김미영(1000), 이민원(1000),
김창종(700), 염정록(700), 손의동(1200), 홍순각(600),
이도익(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천영진(500),
황광우(500), 한상범(500), 이재휘(500), 최형균(500),
조사연(500), 오경택(500), 민경훈(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이광표(500), 김종갑(500), 손동헌(500),
고성관(300), 권광일(300), 석대은(300),
주왕기 · 김회자(300), 오유진(300), 임세진(300),
엄윤기(300), 한성순(100), 김진학(1000), 김동석(300),
제현동(500), 정지훈(200), 김형춘(360), 민혜영(500)
〈제약계 및 기업 ,공직 47명〉
정형식(60,000),
김용옥(35000), 조의환(11000), 박종화(1050), 한만우(1000),
김명웅(1000), 정도언(1000), 박호일(1300), 윤규형(500),
강승안(500), 권석형(500), 서국진(500), 강명채(500),
이성우(500), 이상일(500), 천홍기(300), 홍병석(300),
장영조(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정영수(300),
지태현(300), 김수배(300), 박동우(300), 이승하(300),
정상수(300), 홍용기(300), 김영식(300), 조순현(300),
정진호(300), 천세영(300), 이병두(300), 구영준(300),
박희용(100), 최병철(500), 김중효(500), 박전희(500),
이성욱(500), 박성욱(500), 이준상(500), 장 건(300),
이영욱(300), 방준석(300), 한만영(360), 강석연(300),
서수경(300), 박양혜(100), 양성준(100), 김원호(500),
〈기타 35명〉
학생회(5350), 약대기금(3200), 기업체후원(700), 정재일(500),
동기회(500), 약우회(500), 허근희(300), 권영훈(300),
최민규(300), 91학번친목회(300), 중삼친목회(300),
박노일(300),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임종홍(300)
김동열(300), 한충강(한인빈 학부모)(300), 유윤자(300),
박정배(300), 곽순자(300), 12회동문회(500), 1회동문회(300)
박종혁(300),오호정(300), 중앙대 11회 40주년 기념(300)
2회 졸업생 일동(200) , 약대3기동기회(200),
서울공직중대약우회(200), 64예중회(100), 송병준(100),
황재수(200), 중앙대 50계단회(정영복)(100), 김신미(10)

회원 경조 소식

7월 4일 전봉선(14회) 동문 자녀결혼
8월 22일 박상희 (11회) 동문 자녀결혼
9월 5일 윤주섭(8회) 동문 자녀결혼
9월 12일 김경오(19회) 부회장 자녀결혼
9월 26일 진교성(6회) 이사 자녀결혼
10월 17일 최윤종(4회) 고문 자녀결혼
10월 17일 상경숙(14회) 동문 자녀결혼
10월 24일 박영근(20회) 부회장 자녀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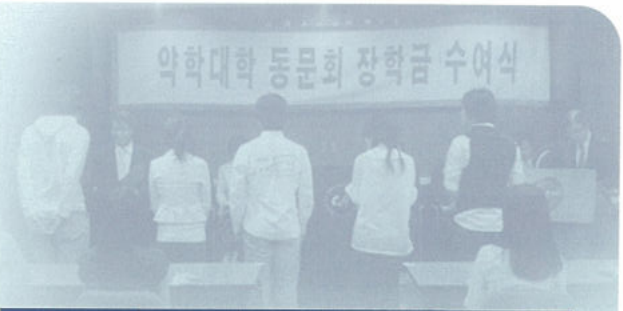
6월 18일 김영춘(14회) 동문 별세
6월 29일 문영동(9회) 이사 모친상
7월 8일 박전희(21회) 동문 빙모상
7월 12일 함삼균(24회) 동문 빙부상
7월 23일 정덕화 (2회) 이사 모친상
8월 5일 김대경 학장 모친상
8월 12일 이민원(25회) 교수 부친상
8월 18일 방만성(27회) 동문 별세
8월 27일 안병식(13회) 이사 모친상
9월 12일 안철종(26회) 동문 빙모상
9월 23일 이민원(25회) 교수 모친상
10월 5일 김경희(6회) 이사 남편상
10월 9일 김영수(6회) 동문 별세
10월 14일 노덕재(12회) 이사 모친상
10월 27일 김문희(33회) 동문 시부상
10월 27일 김재민(19회) 동문 모친상
10월 31일 이연수(4회) 동문 별세
11월 3일 윤대봉(14회)회장 빙부상

6월 27일 문재빈(13회) 이사 MS홀딩팜 개업
7월 8일 강한구(23회) 동문 노보노디스크제약 대표이사 취임
7월 31일 이영욱(22회) 동문 동국제약 부사장 취임
8월 13일 김대경 약대학장 전국약학대학장협의회장 취임
8월 25일 이 준 (29회) 상임이사 이전개업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5-6 104호 / 중앙약국 / ☎ 02)542-6354〉

장학금 수여식

2009년도 2학기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전공	학번	성명	학년
본동문회 (7,000,000)	700,000	약학	20062714	신훈정	4
	700,000	제약학	20082796	정윤선	2
	700,000	약학	20062735	이윤정	4
	700,000	제약학	20062772	최유진	4
	700,000	약학	20072749	이동은	3
	700,000	제약학	20062721	오승연	4
	700,000	약학	20072796	한혜경	3
	700,000	제약학	20072730	성지훈	3
	700,000	약학	20082778	이예슬	2
	700,000	약학	20082818	현한빛	2



장학금명	장학금액	전공	학번	성명	학년
부산동문회 (500,000)	500,000	약학	20082800	정희예	2
안산동문회 (500,000)	500,000	약학	20062774	황지혜	4
여자동문회 (1,000,000)	500,000	제약학	20062675	김예니	4
	500,000	약학	20082804	조연경	2
약제반동문회 (1,500,000)	1,500,000	제약학	20072750	이상곤	3
약수회동문회 (1,800,000)	1,800,000	약학	20062746	장지민	4
나사모동문회 (1,000,000)	1,000,000	제약학	20062736	이윤환	4
	1,000,000	제약학	20062749	전준영	4
합 계 : 14,300,000					

정겨운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간다. 사랑의 젊은 한 시절 ..언제까지나 그대로인 채 ..밝은 미래가 미소지으며 손짓한다. 동문회보를 통해 하나의 힘을 모아야지 ..보다 알찬 다음 호를 위하여 !……

김기명 (18회) 편집위원장

약사회의 커다란 행사와 약사회장 선거 등으로 분위기가 몹시 어수선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약대동문회지가 순조롭게 발간되니 무척 기쁩니다. 여러가지 원고들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동문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정성들을 생각하니 기쁩니다. 편집인의 한사람으로 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홍승표 (21회) 편집위원

동문 모두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된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전폭적인 지원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님(6회)의 약속을 든든한 후원군으로 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대식 (22회) 편집위원

몇해 전이나 지금이나 선거판에서 별로 달라진 건 없구나(달라질 수도 없겠구나)! 그 비용 반만이라도 동문회에 기부하면 무슨 무슨 회장 임기와 상관없이 평생 후배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텐데 저 욕먹으며 저 고생을 뭣하러 하냐 하는 철없는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고 싶지 않다.

박희용 (23회) 편집위원

제법 쌀쌀해진 날씨덕에 하얗게 먼지쌓인 전기히터가 오랜만에 세상구경을 합니다. 약국 차장너머로 보이는 길거리가 을씨년스럽게 느껴집니다.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추진, 약사회 선거가 뒤엉킨 약사사회는 추어진 날씨만큼이나 심란스럽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엎드려 만화책을 읽던 어린 시절이 그립습니다. 동문회지 가을호가 추억속의 그 만화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양연 (32회) 편집위원

첨단기술·개량신약

Hanmi 한미약품

"R&D에 집중 투자하는 회사"

한국의 Best, 세계의 Best

기흥 최첨단 연구센터

경기도 기흥에 2004년 개관한 최첨단 연구센터에서는 신약, 바이오 의약품, 개량신약, 고난이도 퍼스트제네릭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로 한미약품이 미래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국적사에 기술수출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

1989년 스위스 로슈사에 「세프트리악손」 제법기술을 미화 600만달러에 기술수출하였고, 1997년 스위스 노바티스사에 「마이크로에멀젼」 제제기술을 미화 6,300만달러에 기술수출 하는 등 국내 제약업계에 획을 긋는 로열티 수입을 창출하였다.

개량기술, 개량신약 개발의 선두주자

고난이도의 합성기술, 다양한 제제화 및 DDS 개발 등 최첨단의 개량기술 개발과 신규염 개량신약인 「아모디핀」, 「슬리머」, 「에소메졸」, 「아모잘탄」 등의 연이은 개발로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업계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연구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항암제 신약개발 집중화 전략(ORASCOVERY Technology)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과 오라테칸, 표적항암제 후보물질 HM781-36B의 임상 시험, 다양한 신호전달 차단제 후보물질의 전임상 시험 등으로 한미약품은 특화된 항암제 분야에 신약개발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속성 단백질 기반기술 개발(LAPSCOVERY Technology)

새로운 재조합 캐리어를 활용한 지속성 단백질 의약품 기반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단백질 의약품에 적용함으로써 한번의 투여로 수주 동안 충분히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LAPS-EPO, LAPS-GCSF, LAPS-Exendin등 다수가 국내외 임상시험 중에 있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도약

한미약품은 그동안의 개량기술 및 개량신약 개발에서 얻은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고, 국내외 유수한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공동 연구를 통하여 21세기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살빼기캠페인에 이어 금연캠페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 (02) 565-1700 팩스 : (02) 564-1701
E-mail : capa21@hanafos.com
http://www.caupharm.or.kr